금수강산

8

주체105(2016)
루계 제324호 월간

 ISSN 1727-9062

우리의 신념

2. 시련의 천만산악 헤쳐넘으며
력사의 돌풍속에서 다져온 이 신념
당중앙 따라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앞길 누가 막으랴
김정은동지 따라 끝까지 가리라

3. 우리 심장 하나이듯이 신념은 하나뿐
대를 이어 명줄처럼 지키여가리라
당중앙 두리에 천만이 뭉쳐진
우리 힘을 누가 당하랴
김정은동지 따라 승리만 떨치리

차 례

-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

쑥섬의 천도개벽은 말한다 · · · · · · · · · · · · 3
방문기
너도나도 배우는 곳 (1) · · · · · · · · · · · · · · 5
일 화
그이의 비범한 실력 · · · · · · · · · · · · · · · 8
과학기술은 부강조국건설의 기관차 · · · · · · · 9
첨단돌파가 안아온 자랑찬 성과 · · · · · · · · · 10
조국의 재보를 마련한 청년과학자들 · · · · · · · 12
과학기술보급실의 덕을 보다 · · · · · · · · · · · 14
과학기술을 앞세워나가는 일군들 · · · · · · · ·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카륜회의 · 17
전민항쟁과 조국해방3대로선 · 19
수 기
해방동이라고 불리우는 나의 운명을 두고 · · · · · · · · · · · · · · · · · 20
력사의 그날을 더듬어볼 때면 · · · · · · · · · 21
선군, 드팀없는 혁명신조, 거창한 혁명실천 · · · · 22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
철강재생산에서 불바람을 · · · · · · · · · · · 24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양묘기지 · · · · · · 26
또다시 세계패권을 노리는 나어린 처녀선수 · · · 32
시원한 여름풍경 · · · · · · · · · · · · · · · · 32
편 지
애국의 마음을 합쳐갑시다 · · · · · · · · · · · 35
고향소식
민요 《양산도》에 이끌려 · · · · · · · · · · · · · 36
조국의 품에 안겨
아기들의 요람을 지켜 · · · · · · · · · · · · · · 38

진 정 ···································· 40

인상기

과학으로 부강해질 조국의 모습 ··························· 41

과학기술전당에서 본 장애자열람실 ························· 41

고국방문

놀라움과 흥분속에 ································· 42

대외투자관계의 확대발전에 대하여 (2) ························ 44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5) ···························· 45

야 화

8형제총각과 8선녀 ································· 46

사 화

촉석루의 의암 ···································· 47

민족의 향기

민족의 지혜어린 놋제품 ······························ 48

력사인물

고려의학백과전서 《의방류취》편찬에 기여한 로중례 ·················· 48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9) ··························· 50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온 조국통일위업 ·················· 51

민족사에 씻을수 없는 죄악으로 될것이다 ······················ 52

《인권옹호자》의 탈을 쓴 오바마 ························· 53

지울수 없는 문화재략탈범죄 (5) ·························· 54

일본, 죄악은 끝까지 결산될것이다 ························· 56

상 식

단천련은법 ·· 12

자녀들이 왜 부모를 닮게 되는가 ······························ 12

금강산의 다른 이름 ·································· 38

유모아

돈없이 산 술 ······································ 46

조선속담 (실음) ···································· 54

쑥섬의 천도개벽은 말한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쑥섬에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이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부르고있다.

과학기술발전력사관, 기초과학관, 과학탐구관, 응용과학기술관을 비롯한 전당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과학자, 기술자, 대학생들은 물론 누구나 진지한 탐구로 현대과학기술을 터득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과학기술전당 부총장 오정남은 말하였다.

《우리 과학기술전당은 대규모의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 10개의 실내과학기술전시장과 야외과학기술전시장을 갖춘 다기능화된 선진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 사회교육기지입니다.

전당에 오는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과학기술전당을 전체 인민이 찾아와 지식을 배우는 정든 집으로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주체103(2014)년 6월 흙먼지가 날리고 모래가 밟히던 쑥섬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을 과학의 섬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수 있다고, 그러자면 과학기술보급거점이 있어야 한다시며 그 이름을 《과학기술전당》이라고 지어주시였다.

과학기술전당, 이 이름에는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비껴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 들어선 력사적시기에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하시며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힘을 넣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2년전 1월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는데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고, 과학전선이야말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과학기술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갈 때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도 수호되고 인민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도 담보될수 있다는 그이의 높으신 뜻이 담겨진 말씀이였다.

돌이켜보면 그이께서는 공장, 기업소, 어촌, 과학연구기관 할것없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그 어느 단위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여서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어느 한 기업소에 가시여서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본때와 현대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기업소를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어느 한 메기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묘술과 방안을 안겨주시고 어느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제품생산과 질제고, 설비관리와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명확한 길을 가리켜주신 그이이시다.

현지지도의 나날 그이께서 매번 들리신 곳은 과학기술보급실이였고 자주 하신 말씀은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한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실현이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우리 나라가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을 더 잘 꾸려주

어야 한다. 당의 현대화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이 바로 국산화이다. …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중대사로 내세우신 그이께서는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우주과학기술발전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성의 보유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신 그이께서는 우주정복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우주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주체101(2012)년에만도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하여 그이께서 하신 말씀은 얼마이며 현지에 나가시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격려하신적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때로는 연구사업에서 실패한 죄책감에 잠겨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람은 밥을 먹고 크고 과학은 실패속에서 솟구쳐오른다고 하시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때로는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를 순간에 포착하시고 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과학자, 연구사들이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떨치였을 때에는 그리도 기뻐하시며 앞가슴에 영웅메달을 달아주시고 환영연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그들의 과학연구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과학자들에 대한 그이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터전이 되고 주추돌이 되여 솟아오른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미래상점, 연풍과학자휴양소,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준공을 앞둔 미래과학자거리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우리 당이 천사만사인 국사중에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중시하고있으며 과학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락원, 강성국가를 건설해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알려면 미래과학자거리에 와보면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는 대동강기슭을 따라 과학자, 연구사들을 위한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서게 해주시고 올해에는 새로 건설되고있는 려명거리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여주신 그이이시다.

하루빨리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건설하시려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는 인민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으며 이 땅우에 눈부신 현실을 펼쳐놓고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비약의 열쇠를 마련해가는 기풍이 꽉 차넘치고 온 나라에는 누구나 과학기술인재가 되기 위한 배움의 열풍, 전례없는 과학기술열풍이 차넘치고있다.

평양시버섯공장, 평양양말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 평양메기공장, 금컴체육인종합식료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새 세기 표본, 표준공장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현대화되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무변광대한 우주에는 조국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물인 주체위성이, 하늘에는 우리가 제작한 비행기들이 날고 지하에서는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생산한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전례없는 기적창조의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와 남조선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김정은**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은 국제적추세를 앞서가고있다.》, 《북은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있다.》고 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쑥섬의 천도개벽은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조국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본사기자 변진혁

방문기

너도나도 배우는 곳 (1)

얼마전 우리는 천도개벽한 쑥섬의 모습을 해외동포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우리가 쑥섬에 이르니 과학기술전당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과학의 섬을 상징하는 펜촉모양의 과학기술상징탑이며 거대한 원자자리길모양의 과학기술전당, 우주세계로 올라가는 계단모양의 과학자숙소…

그 모습에 이끌려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평양역-과학기술전당》행 무궤도전차에서 내린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당으로 앞을 다투어 찾아오고있었다.

그 물결에 휩쓸려 우리도 과학기술전당으로 향하였다.

우리와 만난 과학기술전당 부총장 하정복은 대규모의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인 과학기술전당은 누구나 마음껏 배울수 있는 충분한 지식의 보물고와 정보봉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과학기술전당은 10개의 실내과학기술전시장과 야외과학기술전시장을 갖춘 다기능화된 선진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 사회교육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당에는 세계의 과학기술문명, 인류의 과학기술문명이 집대성되고 수자화되여 들어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먼저 수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 부모들로 흥성이는 어린이꿈관으로 향하였다.

과학활동무대, 지능계발교실, 과학의 동산구역, 지혜의 샘구역, 자연탐험구역 등으로 특색있게 이루어진 어린이꿈관에는 50여점의 조작형전시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과학의 동산구역에서는 학생소년들이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과학자, 연구사들인양 사물현상의 리치와 원리들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주의깊게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자연탐험구역에서는 원시림속을 헤쳐나가는 탐험가들을 방불케 하는 학생소년들의 모습도 보이였다.

우리가 비행기모의유희기구에 갔을 때였다. 거기서는 락랑구역 관문소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저저마다 싱갱이를 하며 비행기에 올라 마치 추격기비행사라도 된듯 뻐기고있었다.

우리는 조위혁학생을 만났다.

그는 전당에 온 소감을 묻는 우리에게 머루알같은 눈을 반짝이며 정말 좋다고, 계속 와서 많이 배워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의 아버지 조명철은 아들이 너무 성화를 먹여 시간을 내서 왔는데 말그대로 꿈의 세계에 빠져 아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까맣게 잊은

것 같다고, 자기가 직접 조작도 해보고 실지로 느껴도 보고 제 손으로 가동도 시켜볼수 있으니 정말 황홀하고 배울것이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음번에는 소학교교원을 하는 안해와 함께 와서 우리부터 더 많이 배우고 아들의 꿈도 크게 키워주겠습니다.》

절로 마음이 즐거워진 우리는 나어린 학생들과 함께 모의해저유람선에 올랐다.

현실세계에서처럼 생동하게 펼쳐지는 바다속의 생태환경에 대한 가상적인 탐험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하였다.

욕심같아서는 다 보고싶었지만 동포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다른 전시관들의 모습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서둘러 기초과학관에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기초과학관은 《천체와 지구환경》(지구과학), 《현상의 모형화》(수학), 《운동의 리치》(물리학), 《물질의 조화》(화학), 《생명현상의 비밀》(생물학)구역으로 나뉘여져있었다.

천체와 지구환경구역에서 우리는 평안북도 녕변군에서 수학려행을 온 강성혁학생을 만나게 되였다.

그는 우주세계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앞으로 자주 와서 많이 배워 훌륭한 인재가 되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조국인민과 전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들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보여주는 과학기술발전력사관이며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원리와 이 분야에서 이룩된 세계적인 성과들과 오늘의 발전추세가 집대성된 첨단과학기술관, 국방공업부문의 과학기술성과들을 비롯하여 전력, 석탄, 광업, 금속 등 여러 부문의 과학기술적원리들과 발전추세를 보여주는 응용과학기술관들과 미래의 과학기술발전추세를 보여주는 야외과학기술전시장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도 한결같았다.

참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로동자, 농민, 일군들 그리고 대학생들과 학생소년들, 어린이들 등 각계층 남녀로소모두가 과학의 세계에 푹 빠져 높은 리상과 꿈을 키워가는 이곳은 인민의 정든 배움의 집, 풍요한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미래의 집이였다.

이런 훌륭한 집이 있어 머지않아 조국은 과학기술강국의 령마루에 오를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솟구쳐오르는 흥심에 끌려 취재길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일화

그이의 비범한 실력

과학을 중시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실력으로 나라의 과학연구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주체87(1998)년 2월 8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프로그람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울 구상을 안으시고 제8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장을 찾으시였다.

전시회장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조선콤퓨터쎈터(당시)를 비롯한 여러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들에서 개발한 프로그람들이 10여대의 콤퓨터에 나뉘여 전시되여있었다.

전시된 프로그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가장 고급하다고 할수 있는 3차원설계프로그람 《산악》이 적재되여있는 콤퓨터앞에 이르시였다. 한동안 그것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차원프로그람도 개발하고있는가고 물으시고나서 앞으로는 4차원프로그람을 개발하여 별세상에 온것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눈을 틔워주시였다.

4차원프로그람과 같은 세계적인 프로그람기술자료까지 꿰드시고 일깨워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감탄과 경모의 정으로 설레였다.

전문가들과 일군들의 경탄은 비화기앞에서 한껏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화기프로그람담당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시였다.

《비화기에서 지연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0미리초입니다.》

《비화기에서 지연시간이 40미리초이면 약간 알릴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던 그이께서는 또다시 물으시였다.

《암호는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암호는 다층구조방식을 취했습니다.》

그이께서는 《비화기암호화방식에서 다층구조라는것은 열쇠를 3층으로 채웠다는 것일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열쇠전송은 공개방식입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이 프로그람을 만든 담당자도 뜻밖인듯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한 일군이 그를 대신하여 지금 우리의 방식은 비공개열쇠전송방식이라고 말씀드리였다.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앞으로는 공개열쇠전송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세계적으로 그런 방식을 쓴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담당자사이에 오고간 대화의 많은 부분을 당시로서는 전문가들과 일군들도 리해하기 힘든것이였다. 후에 알아본데 의하면 비화기는 두 전화기에 프로그람(암호)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열쇠라고 말하며 그 열쇠를 해득할수도 있다고 하여 다른 암호로 변경시켰다가 또다시 변경시키는 것을 다층구조 즉 열쇠를 3층으로 채웠다고 한다는것이였다. 또 지연시간이란 전화를 하는 사람의 말이 암호로 변형되였다가 다시 원상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며 비공개열쇠전송은 멀리 떨어져있는 두 비화기에 사람이 직접 가서 프로그람(암호)을 넣는 방식인데 지금은 원리적으로 해득할수 없는 암호가 없기때문에 암호를 자주 바꾸어야 하며 그러자면 그때마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가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런데 공개열쇠전송방식은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암호도 전화로 보내여 바꾼다는 것이였다.

실로 그이의 프로그람에 대한 지식의 폭과 깊이는 전문가들도 따르지 못할 신비의 경지였다.

과학기술은 부강조국건설의 기관차

오늘 조국은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의 기초를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과학기술강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오늘 우리가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에는 과학기술발전이 모든 부문의 비약적발전을 추동하고있으며 과학기술의 높이에 의하여 사회전반의 발전수준과 속도가 규제되고있다.

하기에 조국은 과학기술전당 준공으로 새해의 첫문을 열었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려는 우리 조국의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의 과시로 된다.

과학기술은 자기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쳐나가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존엄은 자기의 힘으로 지켜야 하며 그 힘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세계적으로 치렬한 과학기술경쟁이 벌어지고 《고도기술무기》와 《물질기술적우세》로 지배주의를 실현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이 있고 미래가 있다.

지난 2월 조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실용위성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우주에 성과적으로 쏘올림으로써 우주강국의 위용을 다시금 세계에 과시하였다. 조국이 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을 마음먹은대로 아무때나 우주에 쏘올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 조국의 과학기술중시의 승리로 된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워나갈 때 작은 나라, 작은 민족도 강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존엄떨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과학기술은 자립경제의 위력으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하기 위한 기본열쇠이다.

경제적자립은 부강조국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남에게 예속된 경제는 제발로 걸어나갈수 없으며 경제의 발전은 고사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도 망쳐먹게 한다.

경제의 자립성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하고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원료와 연료, 동력문제를 비롯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으며 경제를 전망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조국이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무엇이나 결심하면 다 만들어내고있는것은 자기의 힘과 기술로 다지고다져온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기때문이다.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확고히 앞세워나가는 나라의 조치에 의해 최근에만 하여도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이 곳곳에 일떠섰으며 이곳에서 근로자들은 새 지식을 배우고 실천에 활용해나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공정들마다에 자기의 과학기술력량이 설계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았으며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하여 만든 지하전동차가 그 단적인 실례이다.

과학기술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다. 우리가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목적도 바로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정서와 미감에 맞는 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비상히 빠른 속도로 련이어 일떠서고 도처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현실은 조국에서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생활력의 과시로 된다.

과학기술이야말로 부강조국건설의 기관차이며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갈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도 실현할수 있다.

본사기자

첨단돌파가 안아온 자랑찬 성과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의 과학자, 연구사들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제작소에서는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현실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과학연구과제들을 선정한데 기초하여 력량편성과 조건보장사업을 잘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이미 전에 이동용레스링심판기를 국제경기규칙에 맞게 연구개발한 체계관리운영실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밤낮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대동강자라공장의 통합생산공정조종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가 하면 연구성과확대도입실 실장 한무광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포전기상관측기를 연구제작하여 현실에서 큰 은을 내게 하고있다.

이들이 새로 개발제작한 포전기상관측기는 대기상의 온습도, 해비침률, 강수량, 바람속도, 병해충 등을 예측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과일나무와 식물의 성장과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무인사료공급차를 개발완성하여 대동강자라공장의 현대화에 이바지하였다.

마스크환경실의 과학자, 연구사들도 공기정화소독기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전보다 기술적성능을 더욱 높여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식료공업부문과 보건부문에 보내주고있다.

제작소의 다른 연구실들에서도 첨단돌파를 위한 두뇌전을 과감히 벌린 결과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가운데는 운산공구공장 기술자, 로동계급과 지혜와 힘을 합쳐 개발한 수자식마이크로메터, 질소가스원격측정장치에 의한 사적물보존체계, 농업부문에 도입된 엽록소측정계기 등이 있다.

엽록소측정계기는 다른 나라의것보다 원가가 적게 들고 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농업부문에서 그 수요가 날이 감에 따라 높아지고있다.

제작소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의 비결은 과학연구사업전과정이 단순히 현실도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더욱 빛내이도록 하는데 모든 과학연구사업이 지향되도록 한데 있다.

소장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 류성은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그이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첨단돌파를 위한 두뇌전을 과감히 벌려 뜻깊은 올해에 전례없는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겠다. 하여 우리 조국을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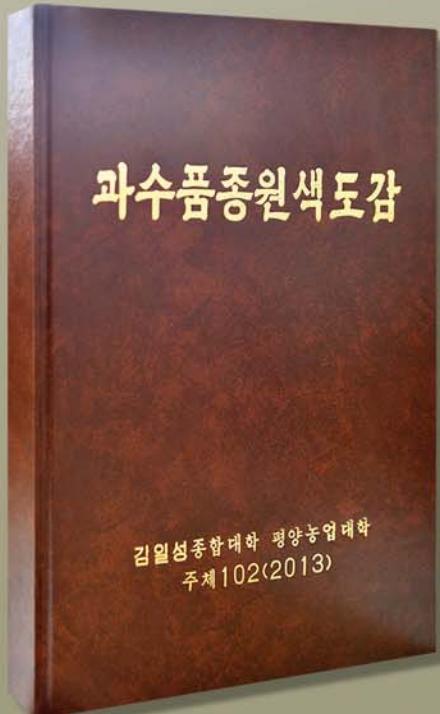
조국의 재보를 마련한 청년과학자들

김광준

《과수품종원색도감》은 과수품종에 따라 과일의 원색을 천연색사진으로 볼수 있게 만든 도서로서 과수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국보적인 도서라고 할수 있는 이 《과수품종원색도감》을 청년과학자들인 농업과학원 부원 김광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연구사 최옥심이 훌륭히 완성하였다.

처음 도서를 만들 결심을 한 사람은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농학부 과수학과에서 공부하고있던 19살의 처녀 최옥심이였다. 물론 대학생인 그에게 도서를 만들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조국을 과수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과수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었다. 이 현실은 과수학을 전공하는 옥심의 가슴을 끓게 하였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숭고하고도 보람찬 사업에 이바지할수 있을가.

그러던 어느날 그는 대학의 한 일군으로부터 아직은 나라에 《과수품종원색도감》이라는 도서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그는 그 일을 자신이 해낼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도감완성기간을 설정하고 곧 사업에 달라붙었다. 현실은 너무도 아름차고 어려웠지만 그는 난관이 부닥칠 때마다 나라의 과수업을 발전시키자면 꼭 도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하나의 의지만을 가다듬으며 일어나 분발하였다.

바로 그러한 옥심을 보며 그길에 함께 나서준 사람이 있었다. 같은 학과에서 공부하던 김광준이였다. 희망과 신념이 꼭 같은 두사람이 합심하여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에 나서게 되였다.

과수품종들이 전국각지에 분포되여있고 과일이 익는 시기가 각이한 조건에서 그들은 서로 한개 대상씩 맡고 떠났다. 서해지구와 동해지구로, 북쪽지대와 남쪽지대로, 생소한 먼곳은 언제나 광준이 맡아나섰다.

광준이 어느 한 과일을 사진찍을 때였다. 나무정수리에 멋있고 잘 익은 과일이 달려있었다. 그 열매를 찍기 위해 그는 휘청거리는 나무가지를 타며 가까스로 사진을 찍었지만 그만에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였다. 그 순간에 그는 사진기부터 품에 안았다. 그가 이런 고충을 겪을 때 다른 곳에 있던 옥심이 역시 비내린 후의 진창길을 걷고걸으며 온종일 과수밭속에 있었다. 그렇게 목적했던 과일을 찾아내고 서둘러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그는 미끄러 넘어졌지만 사진자료가 담긴 사진기부터 안전하게 건사하려고 온몸에 진흙칠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그들은 마음도 행동도 하나가 되여 걸머진 량심의 짐을 지켜가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사실 처음 정했던 도감완성기간도 훨씬 지나 어느덧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생이 되였지만 탐구의 길은 중단되지 않았다.

도서를 마감짓던 어느날 광준은 과일나무에 피여난 꽃을 보며 과일사진만이 아니라 꽃과 잎까지 찍어서 자료로 안받침한다면 글로도 정확히 설명할수 없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고 관찰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그의 생각은 옥심의 지지를 받았다. 그것을 하자면 작업량이 배로 많아지지만 그들은 도서를 다른 나라의것보다 더 잘 만들려는 과학적 야심과 량심을 안고 그 방대한 일감을 또다시 찾아 걷게 되였다. 그리고 매 과수품종에 맞게 일정표를 짜놓고 나라의 방방곡곡을 동분서주하였다. 뙤약볕이 내려쪼이는 한여름의 백리길과 비바람이 불어치는 장마철의 천리길앞에서도 그들의 걸음은 주저를 몰랐다.

《과수품종원색도감》에 실린 여러 품종의 과일들

최옥심(가운데)

명예우에 고결한 의리와 량심을 놓고 나라를 위해 생이라는 주머니를 보석으로 차곡차곡 채워가는 이런 피타는 노력끝에 그들은 6년만에 국보적인 도서 《과수품종원색도감》을 완성하여 주체102(2013)년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지난 1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영광의 단상에 오른 청년과학자들은 오늘도 과학기술로 나라의 과수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결의를 안고 과학탐구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식

단천련은법

1503년 지금의 함경남도 단천에서 김검동과 김감불이라는 사람이 광석에서 연과 은을 따로 뽑아내는 새로운 제련법을 발명하였다. 그것을 《단천련은법》이라고 불렀다.

이 제련법에 의하면 쇠로 만든 남비의 안벽에 석회를 가공한 내화물질을 바르고 광석덩어리를 채운 다음 남비전체를 질그릇쪼각으로 덮고 그우아래에 쌓은 숯에 불을 달아 광석을 녹이게 되여있다.

광석이 녹으면 무거운 연은 아래에 가라앉고 은은 우로 끓어오르게 되여있으므로 은과 연을 손쉽게 갈라낼수 있다.

* * *

상식

자녀들이 왜 부모를 닮게 되는가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오고 락화생을 심으면 락화생이 나온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이것은 모두 유전법칙과 관련되여 나온 말이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것은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 체질, 물질대사형식, 언행, 재능, 일부 유전병의 유전 등 여러면에서 나타난다.

유전은 생식세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시말하여 정자와 란자가 부모의 유전정보를 자식에게 전달한다. 매 세포의 핵안에는 유전을 결정하는 물질인 염색체가 들어있다.

염색체의 주되는 성분이 바로 데핵산이다.

데핵산분자에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성장발육하는가에 대한 모든 잠재력이 담겨져있다.

유전자는 발현과 음폐성의 차이로 하여 아버지를 많이 닮을수도 있고 어머니를 닮을수도 있다.

데핵산분자는 자기 복제를 통하여 대대로 전달된다.

* * *

과학기술보급실의 덕을 보다

만경대경흥식료공장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활기있게 진행해나가고있는 공장들중의 하나이다.

이 공장이 조업한지는 2년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에서나 인기제품생산에서나 다른 공장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있다. 이것은 공장이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리있게 짜고들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공장을 세울때부터 종업원들 누구나가 현대과학기술을 배워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보급실에 원격강의실과 전자열람실, 과학기술도서실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공장이 한창 건설중에 있을 때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대학에 입학한 종업원이 9명이였다면 공장이 조업한 후에는 58명으로 늘어났다. 원격대학 학생들속에는 공장의 일군들도 있고 머리흰 녀성작업반장도 있으며 애티나는 처녀, 총각들도 있다.

종업원들속에 원격대학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공장에서는 원격강의실의 콤퓨터설비와 국가망가입 등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원만하게 갖추었을뿐아니라 대학교원, 연구사들의 초빙강의도 여러차례 조직하고 그들이 콤퓨터도 능숙하게 다룰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공장원격대학 학생들은 하루일을 마치면 과학기술보급실의 원격강의실에서 대학과정안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있다.

20대청년인 튀기작업반 로동자 리광일은 지난 1년동안에 대학 3학년까지 진입하였다. 그는 배운 지식을 현실에서 공고화해나가는 과정에 자기가 맡은 설비와 생산공정에 정통하여 공장의 기능공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빵작업반의 로동자 백설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애어린 처녀이지만 대학에서 배운 강의내용을 현실과 결부하여 산지식으로 다져나가는 과정에 최근 짧은 기간에만도 3가지의 새로운 빵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빵작업반 반장 문영옥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 저는 원격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과정에 과학기술을 앞세워야 공장의 생산성과도 높아지고 사회주의강국의 래일도 앞당겨진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공부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에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열람할수 있는 자료기지를 충분히 구축해놓았으며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계획을 월별, 주별로 면밀하게 세워놓고 총화, 대책사업을 따라세움으로써 종업원들의 학습열풍이 새제품개발경쟁열풍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부문별기초강의와 생산공정에서 지켜야 할 위생규정, 품질인증 등에 대한 기술강의들을 매주 1차씩 받은 종업원들은 몇달 안되는 사이에 기술기능수준이 눈에 뜨이게 높아졌을뿐아니라 원자재를 절약하는 문제,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는 문제, 기능성식료품개발문제 등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척척 풀어나가고있다.

우리는 취재를 통하여 과학기술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과학기술보급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이렇듯 크다는것을 다시한번 알게 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과학기술을 앞세워나가는 일군들

경직과 도식, 침체와 부진을 배격하고 참신하고 탄력있게 일하며 합리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자체의 힘으로 생산을 활성화해나가는 공장, 기업소들의 성과를 음미해보면 례외없이 그곳 일군들의 과학기술수준이 대단히 높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류다른 반응방정식

대동강축전지공장에는 축전지페기물을 처리하여 재생원료를 얻는 기술공정이 있다.

한일용

이 기술공정에 대해 여러 나라 기술자들도 호기심을 가지고있다.

수많은 원료와 자재, 로력을 절약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하나의 기술공정을 다름아닌 지배인 한일용이 세운 하나의 방정식에 의해 나왔다고 하면 아마 믿기가 어려울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이였다.

한일용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축전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 또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축전지페기페설물들이 나오는 조건에서 그것을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던 과정에 그는 우리 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콕스나 가스를 전혀 쓰지 않고 사용기한이 지난 축전지페기물에서 연을 얻어낼수 있는 방정식을 세우게 되였다.

기성리론에서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었던 류다른 반응방정식이였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두기의 로를 세우고 연을 뽑아냈을뿐아니라 환경보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가스를 잡을수 있는 제진계통의 설계와 제작에도 많은 품을 들이였다.

나라에 큰 리득을 준 축전지공업에서의 재자원화에 대한 연구도입성과로 하여 한일용은 지난해 10월 공화국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와 경쟁하라!

선흥식료공장은 크지 않아도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있다. 한것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식료제품들이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고 대량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

에 이바지되고있기때문이다.

크지 않은 공장의 생산건물에서는 400여가지의 식료품들이 년산 수천여t이나 생산되여 국내는 물론 세계 10여개 나라들에도 수출되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이틀에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몇해전 지배인 리희숙에게는 자체의 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식료품을 개발생산하는것이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더우기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는 중요한 요구라는것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한 계기가 있었다. 가슴속에서는 민족적자존심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달라붙었다. 그 나날 리희숙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식으로가 아니라 확대재생산을 진행할수 있는 기업관리, 경영관리방법을 모색하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식료품들을 끊임없이 개발생산하기 위해 그는 자기가 직접 식료품의 개발자, 상표도안가가 되였으며 공장안의 모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새 제품의 개발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었다. 하여 공장에서는 나라에 흔한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기능성식료품을 비롯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연구, 개발, 생산하였으며 독점지표로 될 품종별제품 가지수와 질을 계속 높여나갔다.

얼마전에도 파일빵, 영양단묵 등 5가지의 식료품이 국내 최우수제품으로 인정되였다.

리희숙은 공장의 기업관리, 경영관리방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리론적으로 서술하여 지난해 공화국 경제학 박사로 되였다.

리희숙

농사도 과학기술적으로

사리원시미곡협동농장도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온 나라에는 물론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소문이 났다.

이 농장에서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농장을 돌아본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가지게 되는 생각이다.

비결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사를 지은데 있다.

지난해 농사경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초봄부터 례년에 보기드문 왕가물이 들이닥쳐 논농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물이 말랐다. 그래서 일부 다른 농장들에서는 논에 밭작물을 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미곡사람들은 물을 최대한 적게 쓰는 농법인 물절약형농법에서 그 방도를 찾았다.

힘들게 끌어들인 최소한의 물을 논판에 대주고 물의 하루증발소요계수를 측정한데 기초하여 장마철까지 그 물을 유지하기 위한 날자를 계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판에서 모를 잎나이로 키우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렇게 한 다음 장마철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모를 논에 심었으며 매 작업반들에서는 논벼의 생육단계, 일조률에 따라 비료주는 시기를 선택하고 병해충을 구제하였다.

송윤희

이렇게 방법론을 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며 농사를 지었기에 그들은 지난해에도 좋은 작황을 마련할수 있었다.

오늘도 농장에서는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련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농장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선진농법을 받아들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근 20년간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도하고 그것을 론문화한 관리위원장 송윤희는 지난해 공화국 농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글 본사기자 리 해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카 륜 회 의

(전호에서 계속)

독립군이 우경화되고 반동화되여가는 조건에서 그속에 들어가 군대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무장활동을 벌린다는것은 불합리한 일이였고 불가능한 일이였다.

1930년 당시 독립군의 무력은 매우 렬세한 상태에 있었다. 국민부산하에 독립군의 무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9개 중대밖에 되지 않았다. 그 무력조차도 상층의 분렬로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대립되여있었다.

국민부파란 독립군이 10여년동안 틀어쥐고 온 기존방침의 고수를 절대화하는 보수세력이였고 반국민부파란 기존방침을 반대하고 새로운 로선을 추구하는 혁신세력이였다. 반국민부파 인물들은 공산주의에 공감하면서 그와의 제휴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을 《제3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닌 새로운 중도세력이라는 뜻이다. 민족운동내부에서 반국민부파와 같은 《제3세력》이 대두하였다는것은 이 운동의 방향을 공산주의운동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향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의 대립으로 독립군력량은 분렬되였고 민족운동내부는 혼란에 빠지였다.

독립군의 중대들은 대체로 유격전쟁을 하는데 불리한 벌방지대의 부락들에 주둔하고있었다. 무장도 변변치 못하였지만 규률이 문란하고 훈련상태가 저조한데다가 군중들과의 관계도 잘 가지지 못하였다.

청산리전투나 봉오골전투에서와 같이 일제의 대부대를 무리로 통쾌하게 섬멸하던 1920년대초의 전성기와는 달리 독립군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있었다.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갔을 때 나는 현묵관과 함께 국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국민부력량을 가지고 일본과 싸워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가 국민부자랑을 너무 하기때문에 자극을 주느라고 던진 물음이였다.

《승산은 무슨 승산, 이렇게 버티다가 대국들이 도와주면 독립을 하는거지.》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아연해졌다. 싸워서 이길수 있다는 배심도 없이 대국들의 원조를 기다리면서 맹목적으로 싸우는 군대가 어떻게 맥을 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롱담삼아 국민부 선생님들이 가지고있는 무기를 우리한테 모조리 넘겨주지 않겠는가, 무기만 넘겨주면 우리가 3~4년안으로 일본놈들을 몰아내겠다고 말하였다.

대회준비위원들에 대한 테로가 있기 전이여서 그때까지는 그런 롱담을 할 여유가 있었다. 현묵관이 원래 길림시절부터 내 롱담은 잘 받아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쓴 웃음만 지었다. 철없는 공상을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국민부군대 같은것을 가지고서는 현상유지만 하자고 하여도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형의 군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무장투쟁만이 가장 철저하고 혁명적인 반일항전으로 될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만이 자기의 무장대오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폭넓게 집결시킬수 있으며 대중의 리익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무장성전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전개하면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우리가 타도해야 할 일본제국주의는 청일, 로일 두 전쟁에서 자기 령토의 몇십배나 되는 광대한 땅을 가지고있는 대국들과 싸워 쉽사리 승리한 신흥군사강국이였다.

이런 강국을 타승하고 나라를 찾는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것은 곧 세계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을 타승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광신적인 황도정신을 타승하고 명치유신후 신흥일본이 근 70년동안 이룩해놓은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력량과의 소모전에서 승리자가 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장투쟁만 하게 되면 3~4년안팎에 일본을 패망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젊은 혈기가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생각이였다. 일본군벌들이 그런 고백을 들었더라면 아마 앙천대소하였을것이다.

무슨 담보로 그렇게 판정했는가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다. 맨주먹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담보가 있었겠는가.

우리에게 있는것은 애국심이였고 젊은 혈기뿐이였다. 우리가 3~4년안팎이라고 한것은 일본의 힘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애국심이 그보다 더 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우리에게 담보가 있었다면 그것은 2천만 민중의 힘이였다. 2천만을 잘 훈련시켜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일본군경들을 족치면 나라를 독립시킬수 있으리라는 배심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무장투쟁을 본때있게 해나가자면 대중적지반을 잘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로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

에 대한 구상이 나왔다고 할수 있다.

내가 조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은것이 화성의숙시절이라면 민족의 힘을 처음으로 느끼고 뇌리에 새겨둔것은 3. 1인민봉기때였다. 내가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겠다는 결심을 품은것은 길림시절이였다.

2천만의 총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족적인 항전이 없이는 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순수한 계급혁명이라면 로동자, 농민대중만이 혁명의 동력으로 되겠지만 우리 혁명의 성격자체가 봉건을 반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인것만큼 로동자, 농민은 말할것도 없고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인 종교인, 민족자본가들도 다 혁명의 동력이 될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였다. 우리의 원칙은 민족해방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반일애국력량은 다 집결하고 다 동원시키자는것이였다.

우리가 이런 로선을 내놓았을때 어떤 사람들은 고전에 없는 규정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로동자, 농민을 제외한 다른 계층들과 동맹을 맺겠다는것은 몽상이라고 하였으며 종교인이나 기업가계층들과는 손을 잡을수 없다고 하였다. 화요파에서 김찬이 한때 국민부의 몇몇 인물들과 거래하였다는 리유로 그를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자의 자리에서 들어낸것도 그런 관점때문이였다.

민족주의자들중에도 공산주의자들을 랭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민족주의가 금물이였고 민족주의운동내부에서는 공산주의가 금물이였다. 이런 경향은 민족력량을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두개 진영으로 분렬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20년대 중엽부터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진영의 합작을 위한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1927년에 신간회의 창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신간회의 출현은 리념이 달라도 민족을 위한 길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로 뭉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준 사변으로 민중은 누구나 이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과 그에 매수리용된 개량주의자들의 분해작용으로 하여 이 단체는 1931년에 그 해체를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두 력량이 애국이라는 대전제로 견고한 결합을 이룩했더라면 설사 안팎의 파괴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을것이다.

신간회의 해산으로 모처럼 성사되였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합작이 류산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였다. 민족을 우위에 놓지 않고 리념만 절대화하게 되면 진정한 합작이 이루어질수 없다. 민족해방이라는 대전제를 첫자리에 놓는다면 어떤 계층과도 손을 잡을수 있다는것이 그 당시 나의 견해였다.

우리는 이런 립장을 가지고 해방후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선생과도 합작하였고 지금도 모든 겨레의 리성을 향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고 호소하고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남는것은 외세와 매국노들뿐이다.

민족의 대단결이 그처럼 귀중한 지상의 과제이고 경륜이기에 우리는 반공일선에서 우리에게 총부리를 맞대고 평생을 살아온 최홍희, 최덕신선생이 평양으로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혈육의 정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때 나는 최덕신선생에게 북에 사는 사람이건 남에 사는 사람이건 민족을 첫자리에 놓고 통일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민족이 있고야 계급도 있고 주의도 있지 않겠는가,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는 해서 뭘하고 민족주의는 해서 뭘하며 《하느님》은 또 믿어서 뭘하겠는가고 하였다.

우리는 카륜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모색하던 60여년전에도 역시 그렇게 부르짖었다.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며 정치가는 도량이 넓어야 한다. 정치가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지 못하며 정치가가 도량이 넓지 못하면 대중이 그 정치가를 외면해버린다.

보고에서는 당창건문제를 비롯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나는 보고초안이 준비되자 그것을 곧 카륜회의에 참가하려고 여러곳에서 모여온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들의 토의에 붙이였다. 그때 우리는 낮에는 벌에 나가 일을 하면서 논밭머리와 무개하의 버들숲에 모여 토론하였고 밤이면 진명학교 수직실에서 낮에 종합된 의견들을 놓고 한조항한조항 토의를 심화시키였다.

대중적인 토의과정에 제출된 의견들가운데는 흥미있는 현실적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조선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론쟁이 생기였다. 보고에서 밝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규정을 두고 론의가 분분했다. 론쟁의 초점은 고전에도 없고 아직 그 어느 나라에서도 내놓은적이 없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새로운 성격규정이 혁명의 보편적원리나 합법칙성에 모순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때 당시의 청년들은 근대력사를 변혁시킨 혁명가운데는 부르죠아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밖에 없는것으로 알고있었다. 그런데 사회주의혁명도 아니고 부르죠아혁명도 아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내놓았으니 의문을 품을만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전민항쟁과 조국해방3대로선

1943년 2월분 일제의 《특고월보》에는 이런 글이 서술되여있다.

《…

우리들은 조국 조선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서 적국 일본에 어디까지나 반항한다. 죽을 때까지 반항한다. 죽어서도 역시 반항한다. …》

당시 일본수상 도죠에게 벽성군 청년들이 보낸 이 경고장은 전민족적범위에서 전민항쟁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 1940년대초부터 일제의 패망은 확정적인것으로 되였다.

중일전쟁을 결속짓지도 못한 상태에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날이 갈수록 멸망의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조선에서 일제침략자들의 통치체계는 점차적으로 마비되여갔다. 인민들속에서는 반일반전투쟁이 날로 높아갔으며 적기관 관리들속에서까지 직무태공현상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일제통치체계에 생긴 이러한 취약성은 국내항쟁조직들이 통이 크게 전민항쟁준비를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3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2(1943)년 1월 상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정세가 조성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인민혁명군 소부대와 무장봉기조직들의 배후련합작전을 벌릴데 대한 대일최종작전방향을 제시하시고 이것을 조국해방3대로선으로 확정하시였다. 그리고 이해 2월 하순 신흥지구비밀근거지의 두무봉밀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소부대, 소조 및 혁명조직책임자회의에서 이미 확정한 조국해방3대로선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하여 조국해방3대로선에 따라 전민항쟁을 위한 준비사업이 전민족적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우선 국내에 있는 비밀근거지들을 전민항쟁의 정치군사적거점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새로운 림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이미 꾸려진 국내의 비밀근거지들을 전민항쟁의 정치군사적거점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전국의 주요요충지들에 림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졌다.

그리하여 함경산줄기, 부전령산줄기, 랑림산줄기 등 북부조선의 산악지대는 물론 북대봉산줄기, 아호비령산줄기, 태백산줄기를 비롯한 중부조선의 산간지대들에 여러가지 형태와 규모의 림시비밀근거지들이 더 꾸려지게 되였다. 전민항쟁준비사업을 위하여 또한 국내에 파견된 소부대들과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이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민항쟁력량을 조국해방작전에 철저히 준비시켜나갔다.

소부대, 소조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광범한 반일군중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국내의 넓은 지역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공작원들과 당 및 혁명조직들은 광범한 인민들속에 삐라, 격문, 구호, 전설적인 이야기 등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군술, 고매한 덕성과 풍모에 대한 해설선전을 진행하였다.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도처에서 여러가지 명칭의 항쟁조직들이 무어졌다. 전국의 무장봉기조직들과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대중적무장폭동으로 합세하자!》라는 구호밑에 적극적인 무장봉기태세를 갖추었다.

전민항쟁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은 일제침략군에 강제징집된 조선청년들과 일본본토에서도 벌어져 대학생들로부터 신학교의 학생들, 탄광로동자들로부터 징용로무자들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혁명조직이 뿌리내리게 되였다.

1942년에 일제에게 로출된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여개나 되고 조직적력량이 50만명이 넘었다는 이 수자는 전민항쟁세력이 얼마나 급속히 장성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전민항쟁준비를 위하여 국내의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전민족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총동원될수 있었다.

참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민항쟁은 조국해방3대로선이 있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수기

해방동이라고 불리우는 나의 운명을 두고

이 땅에 조국해방의 환호성이 울려퍼진 때로부터 7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해방동이라고 불리우고있다.

해방동이!

정말 누구에게서나 이 말을 들을 때면 나의 가슴은 절로 뿌듯해지며 지나온 한생을 돌이켜보군 한다.

내가 태여난 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첫 조국개선연설을 하신 력사적인 날이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력사의 그날에 아들까지 봤으니 경사에 경사가 겹쳤다고, 복동이가 태여났다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의 말대로 나는 정말 복을 타고났다. 해방전 막벌이군이였던 아버지는 돈이 없었던탓에 나의 맏누이를 학교문전에 세워보지 못한것은 물론 약 한첩도 마련하지 못해 잃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나는 가렬처절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1(1952)년에 백송인민학교(당시)에서 총포탄소리를 들으면서도 공부를 하였고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게 되였다. 그리고 희망대로 순천고등의학기술학교(당시)에서 공부를 한 나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으며 졸업후에는 로인학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교수의 학직과 박사학위도 받았다.

나뿐아니라 해방후에 태여난 동생들과 내 자식들도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자기의 희망을 활짝 꽃피웠다.

정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빛내여주시기에 나를 비롯한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며 살아오고있는것이다.

하기에 그 복속에 내가 장수하고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주체96(2007)년 10월 나는 심한 심근경색으로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스텐트수술을 받게 되였다.

내가 의학부문에 있어서 잘 알고있지만 스텐트수술은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매우 비싼 수술로 알려져있었다. 특히 약물용출스텐트는 그 값이 보통 금속스텐트에 비해 대단히 비쌌다.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나는 그 비싼 약물용출스텐트수술을 무상으로 받은것은 물론 의사들의 정성에 의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할수 있게 되였다.

그때 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협의회를 하고 원기회복에 좋은 보약을 달이던 소생과 과장 김혜일을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석달만에 완쾌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행이라고, 복을 달고다니는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해방동이이니 복도 따라다니는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나에게 차례진 복은 이것만도 아니였다.

나라에서는 로인들의 건강을 위하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한 공로로 나를 국가적인 대회들에도 불러주었다.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하여 번듯하게 세운 미래상점에서 필요한 모든것을 살수 있도록 우선권도 부여해주었다.

흘러온 나의 한생을 돌이켜볼수록 정말 꿈만 같다.

내가 해방전에 태여나 성장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운명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행복은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그런 행복인 것이다.

하기에 나는 조국해방의 날을 맞을 때면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마음속으로 삼가 드리군 한다.

나는 이 한몸 진할 때까지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겠다.

로인학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박태영

수기

력사의 그날을 더듬어볼 때면

어느덧 70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로동계급은 오늘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날은 주체35(1946)년 8월 10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채택공포하신 력사적인 사변의 날이다.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로 되여있던 산업이 국유화됨으로써 해방된 우리 로동계급은 주권의 주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공장의 주인, 생산수단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다.

력사의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볼수록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의 성과적수행과 더불어 모든것의 주인이 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번영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짚던 우리 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이 어제런듯 눈앞에 삼삼하다.

당시 17살밖에 안되였던 나의 아버지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당시 강선제강소 강서분공장)에서 그 력사적시기를 맞이하였다고 한다. 그때의 환희가 얼마나 컸던지 아버지는 두고두고 그날의 감격을 자식들에게 말해주군 하였다.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발포된 후인 주체36(1947)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을 두번째로 찾아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전동기와 변압기를 비롯한 전기기계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위치가 좋은 여기에 전기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그 방향과 방도까지 밝혀주시였다.

몸소 공장에 찾아오시여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가슴에 새겨안고 나의 아버지를 비롯한 로동계급은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망치와 가위로 철판을 두드리고 잘라 처음으로 전동기와 변압기를 만들어 수령님께 선물로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안의 로동계급이 올린 설비들을 보아주시고 비록 작고 투박한것이지만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앞으로는 더 큰 기계들을 만들수 있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나의 아버지는 한생을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에 안고 살았다. 그래서 공장지령원을 거쳐 지령장으로, 공훈기계제작공으로 되였다.

나는 지금도 기업소의 연혁소개실을 돌아볼 때면 생각이 깊어진다. 거기에는 발전설비생산만이 아니라 크고작은 대상설비를 생산하는 종합적인 련합기업소로 확대발전되고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시된 기업소의 력사와 함께 그날의 아버지모습도 있다.

아버지는 늘 나에게 나라의 맏아들이 된 구실을 잘하라고 당부하였다. 그 당부를 지켜 나는 상급학교가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학공부를 하였고 기업소뿐아니라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달려나가 청춘의 지혜와 땀을 깡그리 바치였다.

나라에서는 공민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나를 로력영웅으로, 기업소의 기사장으로 내세워주었다. 정말 그 믿음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나라를 받들어 한생을 충정으로 빛내여갈 결심뿐이다.

나는 우리 로동계급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존함과 결부하여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창조의 마치로 한생을 빛내여나가겠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기사장
로력영웅 양문상

선군, 드팀없는 혁명신조, 거창한 혁명실천

8월 25일(선군절)은 건군절과 함께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실현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명절이다.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떨치는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존엄높은 조국의 위상도 력사의 이날과 잇닿아있다.

뜻깊은 선군절이 있어 조국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조국인민은 수십년세월 전쟁을 모르고 행복한 삶을 누려올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강력한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진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주체49(1960)년 8월 25일]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선군길에 계시였다.

1960년대로부터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를 넘어 새 세기에 이르기까지 시련의 나날에나 영광의 나날에나 선군혁명천만리를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자욱은 조국의 높은 산과 험한 령,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다.

불과 불이 맞부딪치는 준엄한 최전연의 판문점초소길이며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칼벼랑길 그리고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을 비롯하여 조국보위초소들과 천리전선길들은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오늘도 뜨겁게 전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에 깃들어있는 사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선군길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깊은 태양절날에 찾으신 곳도 철령넘어 최전연의 병사들이 있는 곳이였고 무더운 삼복철에도 그리고 추운 겨울날 무릎을 치는 눈길을 헤쳐넘으신 곳도 철령이였다.

때로는 한해에 다섯, 여섯번도 넘으시였고 주체94(2005)년에는 무려 여덟번이나 철령을 넘으신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어느해인가 철령을 넘어 최전연을 종횡무진하시며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신 선군길을 뜨거운 추억에 담아 돌이켜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는 철령을 많이도 넘었다. 비를 맞으면서도 넘고 눈을 맞으면서도 넘었으며 밤에도 넘고 새벽에도 넘었다. 그래서 철령을 잊을수 없다. 지금도 철령의 험한 령길들과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눈에 선하다. 최전연의 전역이 손금보듯 안겨온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철령

그 나날 일군들이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건강하셔야 한다고, 인민들이 장군님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드릴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우리 조선을 세계의 상상봉우에 우뚝 올려세우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되면 그때 가서 인민들의 소원대로 마음놓고 휴식도 하고 밀렸던 잠도 실컷 자보려고 한다고, 그날은 멀지 않아 반드시 온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조국과 인민을 위한 최전선길을 쉬임없이 헤치시는 길에서 인생의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시였다.

군력이 약하여 자주권을 통채로 잃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 어제날의 조국과 인민의 비참한 운명이고 처지였기에 그이께서는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를 지니시고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최정예전투대오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비상히 강화하시고 무적필승의 군력으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 희생물로 된다는것이 오늘의 세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선군의 기치높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결사수호하고 이 땅, 이 하늘아래 조국과 인민이 대대손손 부강번영할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업적은 선군조선의 꽃다발우에 력력히 빛나고있다.

참으로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드팀없는 혁명신조였으며 거창한 혁명실천이였다.

본사기자 한신애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

철강재생산에서 불바람을

철의 기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가 쇳물처럼 끓고있다.

기업소에서는 매월 강철생산목표를 높이 세운데 기초하여 일별, 주별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이와 함께 압연강재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질좋은 소철레루와 환강, 각강생산 등을 배로 늘이고있다.

우리와 만난 기업소설계일군 장두일은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에서 이룩하고있는 모든 성과의 요인은 국산화의 열풍이 안아온 결실이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기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나 우리의 원료와 자재,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확신을 강철직장에서부터 느낄수 있었다. 직장에서는 4호로 변압기가동대책과 거품질슬라그공정수립, 중간남비무연탄가열장치를 우리 식으로 완성한데 이어 2차 랭각대분무노즐개조사업을 진행하고있었는데 그 전망이 대단히 좋았다.

직장장 박일신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산소분리기를 새로 교체하니 정련로에서의 차지당 시간을 단축하고 많은 에네르기를 절약하면서도 강철생산을 배로 높일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자력자강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어 새로 꾸려진 선재가열로도 돌아보았다.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도입된 이 가열로에서 중유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것이지만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100% 국산화된 로라는것이다. 사실 지난 시기에는 로의 제작에 필요한 내화물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제 손으로 일떠서려는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내화물연구에 달라붙었다. 물론 우리 나라에 흔한 여러가지 광석을 리용하여 새로운 내화물을 얻어내야 하는것만큼 어려운것이였다. 하지만 기업소기술자, 종업원들의 피타는 노력끝에 끝내는 성공하였다.》라고 기업소일군 홍순표는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내화물을 리용하니 시간과 로력이 절약되여 좋고 그 어떤 형태의 가열로에도 손쉽게 도입할수 있어 좋다고 하였다. 또한 생산원가가 적게 들고 그 질이 그전과 대비도 되지 않게 좋아 그 모든것이 그대로 가열로의 우점으로, 나아가서 강철증산으로 이어지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한 국산화의 드높은 열풍은 주체철생산기지와 합금강, 단조품생산직장을 비롯하여 기본생산부문은 물론이고 원료, 연료를 공급관리하는 직장 등 그 어디서나 일어번지며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있었다.

국산화에 기업소의 주체화, 현대화의 지름길이 있으며 국산화이자 현대화라는 자각을 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이곳 기업소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양묘기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에서 찾았다.

양묘장은 참대버드나무와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말그대로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부지가 200정보나 되는 양묘장은 50정보의 평지구역과 150정보의 산림구역으로 나뉘여져있었는데 평지구역에는 7개의 온실과 적응구, 야외재배장, 원형삽목장, 온실종합조종실, 묘목포장 및 저장고, 경기질생산장 등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우리와 만난 과학기술연구소 종합분석실 연구사 박진철은 말하였다.

《우리 양묘장은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시려고 항상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에 의해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 완공된 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122호양묘장이 정말 요란하다고, 하나의 건축군이 형성되였다고,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였다고, 우리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나라의 첫 양묘공장이 멋들어지게 일떠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양묘장이 이렇듯 훌륭하게 건설될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를 밟아보시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양묘장으로 건설되도록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기때문이다.》

정말 그랬다. 양묘장은 나무종자의 선별로부터 시작하여 싹틔우기, 나무모의 영양관리, 온실내부환경조절, 나무모의 포장,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되여있었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온실들에서는 해가림막, 분무기와 송풍기, 배풍기 등이 통합조종체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종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창성이깔나무, 맹산검은소나무, 스트로브스소나무, 세잎소나무 등 여러 수종의 나무모들이 자라고있었는데 적은 로력으로 한해에 두번 키울수 있는것으로 하여 생산량만 해도 천여만그루에 달한다고 한다.

온실들에서 키워낸 나무모들을 야외에서 적응시키는 적응구와 참대버드나무, 은중뽀뿌라나무, 붉은잎뽀뿌라나무모들이 빼곡이 들어찬 원형삽목장을 비롯하여 풍토순화용도입시험구, 야외재배장 등에서도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키돋움하며 자라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종자선별로부터 파종, 나무모저장과 포장, 기질생산을 비롯하여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고도로 자동화, 흐름선화되여 있어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하고있었다. 설비들의 대부분이 우리의 과학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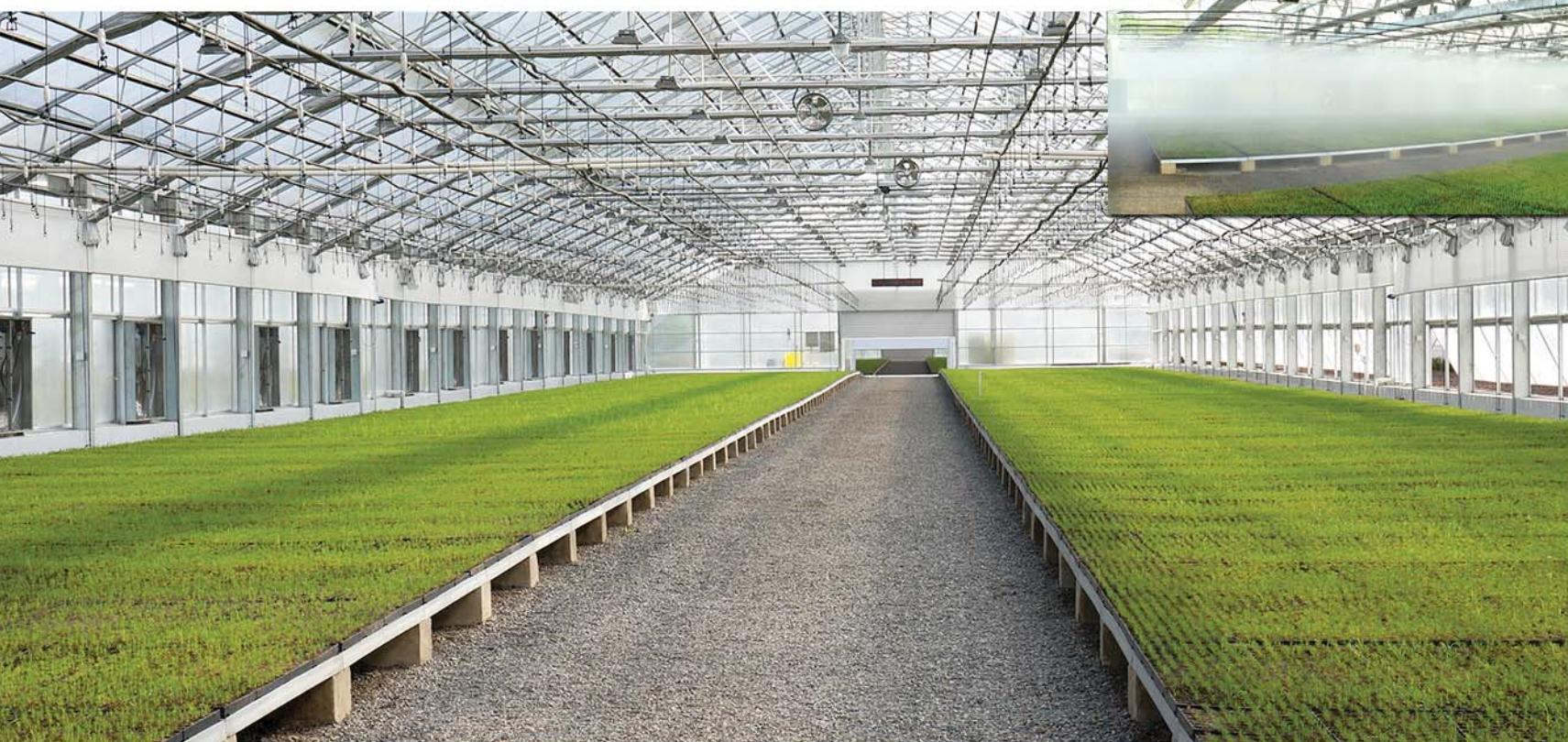
원형삽목장

종자선별

종합조종실

경기질생산

유리온실

적응구

묘목전시장

종합편의

합숙

단기강습소

주택구역

술자,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만든것이여서 더더욱 눈길을 끌었다.

우리는 종합조종실에도 들려보았다. 온도, 습도, 해비침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영양액시비량 등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보장은 물론 모든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전반을 자동적으로 감시하고 조종할수 있도록 통합조종체계도 높은 수준에서 구축되여있었다. 더우기 단일한 수종의 나무모를 키워내는 양묘장과는 달리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적인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구축해놓은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나라의 산림과학을 선도할수 있게 꾸려진 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기질생산, 나무모영양관리, 토양분석, 병해충구제 등에 대한 연구에 큰 힘을 넣는 한편 나무모생산의 최적화실현을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전국적범위에서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하고있었다.

과학연구사업과 나무모생산이 일체화된 양묘장에서는 한해에 30여가지의 종수에 2 000여만그루의 나무모들을 생산하여 전국에 보내주고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조국의 모든 산들이 푸른 숲으로 뒤덮일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남진범

또다시 세계패권을 노리는 나어린 처녀선수

또다시 세계패권을!

이것은 조국의 4. 25체육단의 물에 뛰여들기 선수 김국향이 노리는 목표이다. 아직은 애티도 채 벗지 못한 나어린 처녀가 그런 높은 목표를 세운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국향이가 처음으로 지난해 열렸던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예상을 뒤집고 단숨에 세계패권을 쥐는것과 같은 상상밖의 현실을 창조한것을 보아서는 가능한것이라고 생각된다.

알려진것처럼 그가 참가하였던 세계선수권대회는 가장 높은 급의 국제경기대회로서 세계패권쟁탈전인 동시에 올해에 진행되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참가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 당시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로씨야의 까잔은 국제경기경험이 없는 국향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생소하였고 이 종목에서 제노라 하는 세계적인 강자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물에 뛰여들기 녀자 10m고정판에 나선 그의 모습은 너무도 담찼다.

고정판에서 솟구쳐오르는 나어린 처녀, 순간 허공에서 그의 난도높은 정확한 동작이 아름답게 펼쳐졌고 선수의 몸과 물면사이의 각도, 자세의 정확성을 비롯하여 매 동작들이 유감없이 발휘되였다.

당시 그의 예선경기에 대한 파문은 컸다. 처음 수많은 관중들과 전문가들은 신진선수인 그의 경기모습을 보며 그저 의아함과 놀라움만이 뒤섞여 경탄할뿐이였다. 하지만 그가 예선경기를 거쳐 준결승으로 그리고 결승경기에서 397. 05점이라는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자 찬탄의 목소리를 터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였다.

놀라운 성과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말 놀랐다. 조선의 국향선수가 세계적인 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세계패권을 쥔것은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흥분된 심정을 터치였다. 그러나 국향이가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때부터 이 대회에서 세계패권은 물론 나아가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의 패권을 노리고 출전하였다는것은 다는 모르고 하는 찬사였다. 그는 이미 4년전 물에 뛰여들기선수로 될 때 벌써 그런 크나큰 꿈을 안고 줄달음쳐왔으며 지금은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고있는것이였다.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김국향

시원한 여름풍경

한해치고 제일 무더운 삼복철에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한곬으로 흐르고있다.

그것은 바로 시원한 물속이다.

물속에 한껏 달아오른 몸을 잠그고 자맥질을 하기도 하고 물미끄럼대에서 지쳐내리기도 하는것은 여름철에만 맛볼수 있는 생활의 짜릿한 단맛이다.

요즘 전국의 곳곳에 꾸려진 물놀이장, 수영장, 해수욕장들에서는 물보라 날리는 사람들의 희열에 찬 모습을 볼수 있다.

그들은 가족 혹은 직장단위로 너나 할것없이 곳곳의 수영장과 물놀이장들을 찾는다.

특히 평양의 문수물놀이장은 련일 흥성이고있다. 맑은 물 출렁이는 수조, 솟구치는 파도, 시원한 덕수, 특색있는 물미끄럼대들…

조선서해에서 바다물수송관을 통하여 끌어온 바다물수조에서 파도를 맞받아 헤염치는 사람들,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는 로인들, 조약대에서 기교를 부리며 물에 뛰여드는 청년들, 앞서거니뒤서거니 수영경기에 열을 올리는 학생소년들, 야외모래터에서 떠들썩한 응원속에 배구를 하는 사람들…

문수물놀이장의 방대한 면적이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소리로 꽉 들어차있는듯싶다.

문수물놀이장뿐이 아니다.

릉라물놀이장, 만경대물놀이장, 창광원, 학교들의 수영장…

그것만도 아니다.

조선동해안에 자리잡은 송도원, 마전, 시중호와 조선서해안의 해수욕장들마다에도 넘실거리는 파도와 더불어 해수욕과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경치좋은 곳들에서 좋아라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명승지들마다에 인민들을 위한 해수욕장을 훌륭히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서이다.

서해지구에 위치한 룡수포해수욕장만 해도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나는 매해 평양시민들이 룡수포해수욕장으로 아무런 불편없이 갈수 있도록 관광조직을 하는 직업상특성으로 하여 그곳에

마전에 꾸려진 해수욕장에서

고향이 평양인 국향이가 체육의 세계에 뛰여든것은 8살에 체조선수로 되였을 때부터였다. 그러하였던 그가 물에 뛰여들기선수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데는 조국에 아직은 물에 뛰여들기종목에서 세계선수권보유자가 없다고 하던 어머니의 말을 들은 그때부터였다.

그때 그는 결심하였다.

앞으로 이 종목에서의 세계패권은 다른 선수가 아닌 내가 쟁취하여야 하며 그것도 한번만이 아니라 련속…

이렇게 그는 스스로 어린 두어깨에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걸머지게 되였다.

체육경기에서 우연한 승리란 없다. 드높은 정신력과 담력, 강의한 의지와 육체적준비, 고도의 기술을 떠나 그 승리를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국향은 신정림감독의 지도밑에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물에 뛰여들기종목은 국향이가 하였던 조마운동과 류사한 점은 있으나 첫 출발로부터 공간에서의 정확한 자세에 기초한 각이한 회전, 몸펴기 등과 같은 난도높은 동작들을 2초도 못되는 짧은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것으로서 힘든 종목이였다.

하지만 그는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였다. 때로 주저앉을번도 하는 자신을 이겨내기 위한 전투였으며 가슴속에 간직한 소중한 꿈을 현실로 꽃피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결사전이였다. 그는 스스로 탄력망에서의 훈련시간을 배로 늘이였으며 정확한 공간자세에 대한 표상을 가지기 위한 실동훈련에도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세계에로 지향하는 그에게는 만족이 없다. 물론 세계선수권을 쟁취한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그는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보다 완벽하게 완성하고 공간회전각도와 속도, 빠른 몸펴기 등을 높은 수준에서 속속 련마해가는데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다.

심장에 끓는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남김없이 떨쳐가려는 국향선수의 드높은 열의는 훌륭한 성과로 이어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가보아 잘 안다.

그곳 해수욕장의 끝단에서 건설재료로 쓰이는 불돌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취하였으면 하는 일군들의 제기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건설재료라고 하여도 룡수포의 훌륭한 경치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해수욕장을 더 잘 꾸리도록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들으며 일군들은 해방직후 묘향산에서 일제가 운영하던 금광을 계속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을 때 아무리 금광에서 천만금이 나온다고 하여도 묘향산의 경치와 바꿀수 없고 조국의 명산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단호히 폐광하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뵈옵는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위해 113건이나 되는 형성안을 지도해주시였다.

정말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그 사랑에 떠받들리워 조국땅에는 가는 곳마다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것이다.

하기에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을 나서는 사람들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는 조국의 고마움을 안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결의다지고있다.

나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안고 인민들에게 나라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평양시인민위원회 국장 주재금

룡수포해수욕장에서

명사십리에 꾸려진 해수욕장에서

중국 길림성 장춘시 2도구 심전가 건업화원
4동 3문 201 김재선형님에게

애국의 마음을 합쳐갑시다

형님, 그동안 건강하였습니까.

가족들도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집에서도 다 잘 있습니다.

세월은 류수와 같다더니 형님이 우리 집을 다녀간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형님이 저를 만났을 때 해외에 살면서 제일 그리운것이 조국이라고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형님이 조국을 다녀간 후 그사이 많은것이 변모되였습니다. 몇해사이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위

성과학자주택지구, 은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많은 살림집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면서 평양의 대동강반에 현대적인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섰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대동강 한복판에 있는 쑥섬에 세계적인 과학기술전당이 건설되여 평양의 아름다움을 한껏 부각시키고있습니다.

그 거창한 변혁의 흐름속에 우리 구장군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읍지구에 현대적인 미래원이 일떠서 군안의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지망에 따라 중앙대학으로부터 원격강의를 받고 평양에 있는 과학기술전당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들도 마음껏 보며 지식의 탑을 쌓아가고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히 꾸려진 체육공원, 군문화회관에서 도시부럽지 않는 문명한 생활을 하며 마음껏 행복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참, 《금수강산》잡지에 실린 이 사진도 지난해 새로 훌륭히 꾸려진 탄부원에서 우리 가정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찍은것입니다.

정말이지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버림받던 구장이 이제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되였습니다.

행복이 커갈수록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형님도 텔레비죤과 방송을 통해 조국의 소식을 보고 들었겠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그날들에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우리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무도회를 비롯한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는데 정말 멋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국에서는 더 좋은 래일을 위해 힘찬 진군길을 다그치고있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가정에서도 나라를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섰습니다.

안해는 가정부인이지만 집에 편안히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유휴자재를 모아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려고 아글타글하고있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우리 외동딸 충의도 일을 잘하여 직장에서 혁신자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형님, 인간의 진정한 삶은 돈이나 명예에 있는것이 아니라 참다운 애국에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온 형님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에서, 형님은 해외에서 애국의 마음을 합쳐갑시다.

그럼 형님과 온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면서 이만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북도 구장군 읍 19인민반
김희찬사촌동생 올림

수정못에서

고향소식

민요 《양산도》에 이끌려

대동강을 따라 펼쳐진 주요 명승지들의 경치를 담은 민요 《양산도》에는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평양의 모란봉과 나란히 맹산의 이름도 새겨져있다.

맹산,

그 옛날 너무도 궁벽한 산골이여서 이 고장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대해 자랑할것이 없어 《방오석》(방씨성을 가진 사람, 까마귀, 돌)을 서글프게 자랑하군 하였다는 맹산군이 민요 《양산도》에 그 이름이 올라있어 오늘날 이 고장사람들은 아주 긍지스럽게 여기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맹산으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역시 노래그대로였다. 물맑은 강변에서 힘자라는껏 뛰여노는 아이들과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송아지떼들과 염소떼, 읍지구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봉우리들 아래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살림집들과 다층건물들, 미래원과 아동공원, 학교와 유치원, 지방산업공장들이 도로를 따라 틀지게 들어앉아있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말그대로 한폭의 그림같았다.

(과연 여기가 그 옛날 눈물속에 《방오석》을 전하던 맹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읍지구의 여러곳에 사진기렌즈의 초점을 맞추는데 뜻밖에도 한 녀인이 포착되였다.

우리의 직업을 알아차린듯 그는 자기 소개를 하며 맹산자랑의 주머니끈을 슬며시 풀어놓았다. 그는 맹산군과 린접한 덕천시에서 살다가 맹산에 대한 소문에 끌려 거처를 이곳으로 옮겼다는 맹산군탁아소 소장 류정이였다.

지난날 사람 못살 고장이라고 하대를 받던 맹산군이 자기의 낡은 모습을 근본적으로 털어버리기 시작한것은 백두산절세위인의 뜨거운 손길이 닿은 그날부터였다고 한다.

40여년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산새도 날아들기 저어하는 두메산골 맹산땅을 찾으시여 군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잠업과 축산업, 과수업을 발전시키고 밭을 논으로 풀어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군안의 인민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산이 많아 논농사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널려진 뙈기밭들을 논으로 풀고 수십리에 달하는 강하천을 정리하여 물길을 새로 냈으며 주변의 야산들에 수많은 과일나무들과 뽕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과수업과 잠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산마다 원료기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맹산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나 자체의 힘으로 군을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릴 결심드높이 이악하게 달라붙어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식료, 건재, 종이, 제약공업 등 여러 부문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였다.

《오늘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의 학용품은 물론 여러가지 질좋은 가구제품들과 효능높은 고려약을 비롯하여 600여종의 제품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적극 향상시키고 있답니다.》라는 류정의 이야기를 듣고난 후 우리는 군식료공장에 들려보았다.

말그대로 공장에서는 맛좋고 영양가높은 꿀바싸를 비롯하여 40여종의 식료품이 생산되고있었

천연기념물 맹산검은소나무림

맹산식료공장에서

맹산군탁아소에서

맹산군 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질좋은 가구를 생산한다.

평지리 동화마을의 봄풍경

다. 100% 국산화된 설비들의 동음에 맞추어 줄줄이 쏟아지는 제품들이 그대로 인민들의 식탁을 보다 풍성하게 해준다는 이곳 생산자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마저 흥그러워졌다.

식료공장을 나와 취재길을 이어가는 우리의 귀전에 문득 군문화회관에서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가요 《내 고향 맹산은 좋아》였다.

제힘으로 꾸린 보람이 산천에 열매를 맺고 이름없던 내 고향이 온 나라의 자랑이라고 긍지에 넘쳐 노래부르는 랑만적인 청년들, 아니 이 고장사람들모두의 행복한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어려왔다.

민요 《양산도》에 이끌려 맹산땅을 찾은 우리의 가슴속에는 또 한편의 민요 《내 고향 맹산은 좋아》의 선률이 흥그럽게 흘러들었다.

어제날 산천경개만을 노래하던 맹산이 오늘은 행복이 무르익어가는 살기 좋은 맹산으로 되였다고 긍지높이 자랑하는 이 고장사람들의 노래소리는 우리에게 더욱 풍요한 래일을 약속하는듯싶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아기들의 요람을 지켜

지금으로부터 42년전 일본의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어느 한 집에서는 밤새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너 혼자 조국에 갈수 있겠니?》

배장윤

《어머니, 모두가 조국으로 가는데 왜 나라고 가지 못하겠나요. 일없어요. 난 꼭 조국에 가서 의사가 될 내 희망을 성취하고야말겠어요.》

…

이렇게 되여 배장윤은 주체63(1974)년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조국에서는 의학공부를 하고싶어하는 그의 소원대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학용품을 비롯한 모든 학습조건과 생활조건을 다 보장해주었다.

뿐만아니라 기숙사생활을 하는 그에게 외로운감이 있을세라 방학때면 백두산, 금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명산들에 대한 답사, 견학을 하도록 해주는 등 언제나 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해주었다.

정말 날마다 베풀어지는 조국의 사랑은 부모그리운 정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따사로왔다.

장윤은 조국의 품에 안겨 받아안은 그 모든 사랑을 어서 빨리 의사가 되여 사람들에게 그대로 쏟아붓고싶었다.

하기에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 평양산원 3애기과 의사가 되였다.

울음으로밖에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들을 녀성도 아니고 남성인 그가 돌본다는것은 말이 쉽지 정말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 아기들때문에 사랑하는 처녀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드문하였다.

《정말 저의 남편은 련애할 때 언제 한번 약속을 지켜본적이 없답니다. 한번은 제가 저와 애기중에서 어느쪽이 더 귀중한가고,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세쌍둥이가 많이 태여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세쌍둥이가 태여났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제일 기뻐하시는데 그 애들의 건강을 지켜선 의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여야 하겠는가야 뻔하지 않는가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에 절로 반하고말았습니다.》라고 그의 안해 강필화는 이야기하였다.

정말이지 세쌍둥이들에게 돌려지는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왔다. 세쌍둥이들에게 남자애면 은장도, 녀자애면 금반지를 선물로 줄뿐아니라 그 애들의 아버지에게는 은장도, 어머니에게는 금반지를 주었다. 그리고 4살이 될 때까지 육아원에서, 8살까지는 양육보조금을 주며 국가부담으로 세쌍둥이들을 키우는 조국의 사랑을 페부로 느껴서인지 자기 사업에서 더욱 책임성을 높인 그였다.

그래서 명절날, 일요일 가림없이 세쌍둥이들에게 자기의 정성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아기들곁에서 잠시도 뜨지 않고 그들의 표정, 피부색, 호흡을 정확히 관찰하였으며 매일 의사협의회를 조직하여 아기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비끼게 하였다. 아기들의 밝은 웃음을 볼 때가 장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때였다. 자기에게 두 딸과 아들이 태여났을 때조차 그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 안해에게 량해를 구하고는 산원에서 태여난 세쌍둥이들과 함께 있었다.

갓 태여난 세쌍둥이들의 생명을 책임적으로 돌봐준다.

그런 그에게 잊지 못해하는 날이 있다.

그것은 주체83(1994)년 7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였을 때였다. 뜻밖에도 그는 강원도 김화군에서 태여난 세쌍둥이를 위해 직승기에 오르게 되였다.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여서 어리둥절해있을 때 그들은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절통한 마음 그 누구보다도 크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원도 김화군 창도리에서 세쌍둥이가 태여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즉시 직승기를 보내도록 하시였다는것이였다.

장윤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이렇게 수많은 세쌍둥이들이 조국의 따뜻한 사랑속에 고고성을 터치였다.

그 나날 그는 과장으로, 공훈의사로 자라났다.

조국으로 혼자 보낸 아들의 모습이 보고싶어 주체103(2014)년 조국을 방문하였던 그의 어머니는 공훈의사가 된 아들의 의젓한 모습을 보고 조국에 와서 모든 일이 너의 뜻대로, 네가 바라던대로 되고있으니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올해 59살인 배장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오늘도 세쌍둥이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휴식의 한때

상식

금강산의 다른 이름

천하명승 금강산은 일찍부터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고 사계절 특이한 경치를 펼쳐보이는것으로 하여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웠다.

력사적으로 보면 금강산은 우리 나라에 불교가 널리 퍼지기 전에는 《선산》(신선이 사는 산)이라고 불리웠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풍악산》, 《상악산》, 《개골산》이라는 이름들로 불리웠다고 씌여졌있다. 풍악산이란 가을이면 온 산이 단풍천지로 되는데서 붙은 이름이고 개골산이란 겨울이면 흰눈에 덮인 기묘한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것이 마치 뼈만 남은것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리고 상악산은 새하얀 메부리가 서리발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후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는 《봉래산》으로도 불리우게 되였다. 그리고 금강산의 금강이란 금속처럼 빛나고 굳센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나라에 불교가 널리 퍼진 후 중들이 먼데서 바라보면 금속처럼 빛나고 굳은 돌로 되여있는 산이라고 하여 이 산을 불경인 화엄경에 나오는 금강산과 결부시켜 붙인 이름이다.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으로 불리운다.

* * *

진 정

지난 2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였다.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행사장에는 두 아들과 함께 행사보장을 위해 남달리 뛰여다니는 한 녀인이 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김영자동포였다.

김영자, 그는 조국의 라선시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동포기업가이다.

그가 자식들과 함께 조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을 안고 발을 내디딘 곳이 라선시였다.

조국에서 기업활동을 한다는 기쁜 마음을 안고 두 아들과 함께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이였다.

라선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시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밤 영자동포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조국땅을 밟을 때면 해외동포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생각에 늘 마음이 젖어있던 그였다.

다음날 아침 두 아들과 마주앉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애들아, 라선땅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이 진행된다누나. 물론 회사를 꾸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사업에 우리도 무엇인가 이바지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이미 어머니결심이 선것 같은데 우리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맏아들은 그러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구나. 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시는데 필요한 화강석을 마련할 결심을 했다.》

이렇게 되여 어머니와 두 아들은 화강석을 마련하기 위한 일에 나서게 되였다. 결심은 컸지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강석을 마련할 일념을 안고 영자동포는 온몸이 눈사람이 되여 채취장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화강석을 찾아 검사를 하여보면 정상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번, 헛걸음을 거듭하면서도 그는 주저없이 산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나니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였다. 남은것이란 집안에 있는 가산뿐이였다.

어느날 그 가산을 안고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보며 막내아들이 말하였다.

《어머니, 그만큼 노력해도 안되는데 이제라도 그만둡시다. 더우기 이제 그것까지 없으면 회사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돌아서는 막내아들의 모습을 보는 영자동포의 눈굽도 젖어들었으나 그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그러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두 아들은 또다시 힘을 얻고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이렇게 기업활동도 뒤로 미루고 그들은 2년만에야 그처럼 찾고찾던 화강석을 찾을수 있었다.

김영자와 그의 아들들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리워, 해외동포들의 이런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리워 조국의 북단 라선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지게 되였다.

참으로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은 불가능을 모르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과학으로 부강해질 조국의 모습

나라마다 자기의 발전전략이 있다.

오늘 조국은 끊없이 발전하고 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며 래일이 다르다.

나는 이것을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하면서 더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주체76(1987)년과 주체92(2003)년에 조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너무도 판이한 모습이 이번에 나를 맞이하였다.

물론 신문과 텔레비죤으로 조국의 전변에 대하여 보아왔지만 실지 눈으로 보니 그 감흥은 류달랐다.

특히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의 매개 건축물들은 개성이 있으면서도 특색이 있어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건축물형식뿐이 아니였다. 내부도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게 꾸려져있었다.

과학기술전당에는 어린이들로부터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와서 지식의 탑을 더한층 쌓아가고 과학자들이 연구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들이 구축되여있었다.

전당의 여러곳을 돌아볼수록 여기서 꿈을 키운 학생들이 과학으로 조국을 떠받들고 지식의 탑을 쌓은 과학자들이 앞으로도 인공지구위성을 련속 쏴올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뿐아니라 과학기술로 전진하며 더욱 부강해질 조국의 모습이 방불히 그려졌다.

나는 이런 조국을 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류하현지부
지부장 김윤학

과학기술전당에서 본 장애자열람실

내가 이번 고국방문기간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곳은 과학기술전당이다.

과학기술발전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보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는 고국에서는 최근 쑥섬을 과학의 섬으로 전변시키였다.

어린이들로부터 학생소년들, 청년들, 머리에 흰서리를 얹은 로인들까지도 과학기술전당을 끊임없이 찾아오고있었다.

그들속에는 장애자들도 있었다.

과학기술전당의 1층에 있는 장애자열람실은 특별히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것은 내가 조국의 장애자들을 돕는 사업을 10여년간 해오고있기때문이다.

장애자열람실에는 장애자용콤퓨터와 전자설비들, 일반콤퓨터들과 수많은 도서들이 갖추어져있었다.

나는 먼저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콤퓨터에 앉았다. 건반에는 점글자가 표시되여있었고 장애자열람프로그람도 음성자료로 되여있었다. 시각장애자들은 필요한 자료를 곁에 있는 인쇄기를 리용하여 점글자로 된 문서를 뽑을수 있었다.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콤퓨터의 옆에는 보호자용의자도 있었다.

나는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콤퓨터에도 앉아 자료들을 보았다. 콤퓨터에는 손말동화상자료들이 가득차있었다.

장애자열람실의 한쪽벽에는 서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애자들은 독서를 하고 휴식도 할수 있었다.

나는 이 모든것을 주의깊게, 감동깊게 보면서 고국의 장애자들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나는 과학의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길에 장애자들도 떳떳이 들어서고있는 고국에서는 육체적인 장애자는 있을수 있어도 정신적인 장애자는 있을수 없을것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재미동포 신영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서

고국방문

놀라움과 흥분속에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재중조선인 예술단 및 후원단 -

흥겨운 춤판에서

조국에 체류하는 나날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성원들과 재중조선인예술단과 그 후원단 성원들은 내내 놀라움과 흥분속에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어쩌면 저렇게도 아름다울가.》, 《어쩌면 그리도 훌륭할가.》, 《어쩌면 저렇게도 빨리 건설하였을가.》라는 말들을 남기였다. 그들이 남긴 말을 되새겨볼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을 가슴에 안아보는 해외동포들의 모습이 다시금 그려지게 된다.

제18차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면서 모란봉예술단 단장 김미숙은 위인칭송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는 인민들의 그 갸륵한 마음이 있어 절세위인들의 존함은 영원히 조선과 함께 빛난다고 하였으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 김경렬은 조국의 어린이들이 부럽다,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는 그들을 보니 집에 두고온 딸이 생각난다, 다음에 조국에 올때에는 꼭 딸을 데리고 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재능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있는 조국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였다.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본 재중조선인예술단 후원단의 렴순자동포는 조국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전당에 있다고, 래일이면 조국이 또 어떻게 발전할가 하는것을 자기로서는 가늠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조국방문의 나날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만경봉에 올라 아름다운 평양의 모습도 부감하였으며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과 묘향산 등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릉라곱등어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성원들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는 동포들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대외투자관계의 확대발전에 대하여 (2)

대외경제성은 투자환경개선과 관련한 법률적조치들을 취하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의 창설과 관리사업을 진행한다.

대외투자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다음으로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투자장려대상들을 정하고 그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공화국정부는 올해에 수력 및 화력발전부문을 비롯한 에네르기개발부문, 공화국의 령역안에서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있는 여러가지 광물자원개발과 그 제품생산부문,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생산부문, 공화국에 없는 새로운 제품개발부문, 최첨단기술개발부문, 철도와 도로, 항만, 도시경영시설을 비롯한 하부구조개발부문과 같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투자장려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대상들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유리한 특혜적인 조건과 봉사를 제공하고있다.

대외투자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정부의 이름으로 투자원금상환과 리윤지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담보하는 법률적인 조치들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취하고있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천연자원개발과 하부구조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는 법적으로 담보된 독점적인 개발권을 정부의 이름으로 부여해주며 계약전기간 그 권리를 법적으로 적극 보호할수 있도록 모든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유색금속들과 희유금속들을 개발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외국투자가들에 한해서는 여러가지 세금면제, 감소와 같은 특혜를 제공하며 전력부문과 같은 나라의 전략적인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는 투자대상에 대한 독점적인 개발권을 법적으로 부여해주는것과 함께 가치있는 천연자원을 개발할수 있는 리권도 동시에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이와 같은 리권들은 짧은 기간안에 투자원금을 상환하고도 큰 리윤을 획득할수 있는 확고한 가능성을 보장한다.

공화국정부는 주체82(1993)년 라선경제무역지대를 특수경제지대로 선포한 다음 이 지대를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운영하고있으며 그 이후 변화발전하는 대외적환경과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하여 20여개의 새로운 특수경제지대들을 내오고 그를 통한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이 지역들을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지역적거점으로 개발할것을 결정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이미 각 도마다 경제개발구들을 우리 식으로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였다.

우리 식의 경제개발구들을 내온다는것은 조선인민의 리익과 조선의 실정에 가장 알맞는 경제개발구들을 창조한다는것이며 경제개발구들을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은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제개발구들을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다.

경제개발구를 내오는것은 국내외의 우수한 생산요소들을 집중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뿐아니라 개발구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투자가들에게도 큰 리익을 보장해주는 거창한 경제활동이며 그것은 특수경제지대개발의 필수조건이라고 부르는 유리한 지리적위치, 현대적인 하부구조, 특혜제도, 외부지원환경 등이 원만히 보장될것을 요구한다.

경제개발구사업의 이와 같은 필수조건들이 합리적으로 결합 및 보장되여야 다른 나라의 우수한 생산요소들이 개발구에 집중되며 국내의 생산요소들과 서로 결합되여 높은 경제적효과를 나타낸다.

인민경제대학 강좌장 교수 박사 조창준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5)

옛 민족무술권법으로부터 조선민족의 슬기와 용맹의 상징으로 발전하여온 태권도,

구성과 내용, 과학성과 무도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태권도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속에서도 널리 보급되고있다.

민족의 자랑 태권도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조선민족의 무술이 세나라시기에는 번창하였지만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서는 석양길을 걷다가 그것마저도 나라를 빼앗긴탓에 일제의 탄압으로 겨우 명맥이나 유지해온 정도였다.

그러던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때부터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게 되였다.

해방후 조선의 무도인들은 수박희와 택견, 평양날파람을 비롯한 옛 민족무술들의 모든 우점들을 종합체계화하여 현대무술로 발전시켰으며 그 이름을 《태권도》라고 명명하고 주체44(1955)년 4월 세상에 공포하였다.

태권도는 조선민족의 기상과 넋이 깃들어있는 고유한 운동으로서 몸에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주로 발과 주먹(또는 손칼) 등을 리용하는 갖가지 재치있고 날랜 동작으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타격을 안기는 무술이다.

근본적으로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존경하고 아끼는 조선민족의 정신도덕적특성으로부터 태권도는 호신 즉 남을 먼저 공격하여 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저지시키거나 반공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태권도가 방어무술이라는것은 24개의 틀에서 첫시작동작들이 모두 방어동작으로 이루어진것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하지만 태권도에는 외유내강한 조선민족의 정신세계와 슬기가 깃들어있어 훌륭한 방어기술과 함께 다른 무술도 감히 따르기 어려워하는 공격수단과 공격기술 그리고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위력도 포함되여있다.

기본동작, 틀, 맞서기, 단련, 호신술은 태권도의 기본구성을 이루며 여기에 특수한 요소로서 위력과 특기가 포함되여 완전한 구성을 이루고있다.

태권도의 기본동작들은 과학적원리에 맞게 만들어졌기때문에 태권도를 통하여 인내성과 의지를 키워나갈뿐아니라 어떤 상대라도 능히 물리칠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태권도의 틀은 균형적인 몸자세와 천지틀, 단군틀, 최영틀,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는 조국의 선수들

통일를 등의 틀들이 담고있는 리론적의미와 동작의 꾸밈을 통하여 열렬한 애국심을 가다듬게 하며 또 맞서기를 통하여 대담성과 자제력, 겸손성을 키우게 한다.
태권도기술의 독특성은 발차기기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태권도의 발차기기술은 발과 다리의 특성을 잘 살려 만들어졌는데 서서 혹은 뛰면서는 물론이고 누워서도 여러가지 목표에 대한 타격을 원만히 할수 있게 되여있으며 2~3중차기, 3~6회 발차기도 쉽게 수행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처럼 무술의 모든 우점을 다 안고있는 조선민족의 자랑인 태권도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진정한 민족의 정통무술로 자기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며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태권도보급을 위하여 3만여매의 사진이 포함되여있는 총 15권으로 된 《태권도백과사전》과 《태권도백과사전》(종합본)을 출판하도록 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태권도의 발상지이며 중심지인 평양에 세계적인 태권도관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건물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친필로 《태권도전당》이라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오늘 조선에는 태권도를 전문으로 보급하는 태권도성지관과 태권도전당이 꾸려져있어 누구나 다 태권도를 배우고있으며 하루일 시작전이나 휴식시간에 건강태권도, 로인태권도, 소년태권도를 하며 무병장수를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태권도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한 조선의 태권도선수들은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주체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파시하고있다.

본사기자 강진성

야 화

8형제총각과 8선녀

옛날 하늘의 8선녀가 묘향산 만폭동 유선폭포의 팔담에 내려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물놀이도 하였다고 한다.
이때 만폭동어귀에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사는 8형제총각이 살고있었다.
하루는 8선녀가 팔담에서 물놀이를 하고있는데 난데없이 한쌍의 범이 나타나 그들을 해치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만폭동골안으로 오르던 8형제총각은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목숨을 내대고 결사전을 벌려 8선녀를 구원하였다. 8형제총각은 그들이 여기에 내려와 물놀이를 할 때면 늘 이렇게 그들을 남몰래 지켜주군 하였다.
선녀들은 총각들에게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은혜에 사의를 표하였다.
그후 어느해 가을 한번은 8선녀가 또 만폭동에 내려와 놀다가 돌아갈 저녁이 되였는데 막내선녀가 갑자기 몸이 불덩어리가 되여 앓기 시작하였다.
선녀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8형제총각은 막내선녀를 잘 간호해줄터이니 마음놓고 어서 하늘나라로 떠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날 선녀들은 막내선녀를 8형제총각에게 맡기고 떠났다.
8형제총각은 그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다. 그래서 막내선녀의 병은 씻은듯이 나았고 8형제총각의 동자를 맡아해주었다.
며칠후 다시 만폭동으로 내려온 언니선녀들은 완쾌된 막내선녀와 만났고 총각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고마움에 다시 사의를 표하였다.
그날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는 8선녀한테서 8형제총각의 착하고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되여 8선녀와 그들이 짝을 뭇도록 해주었다. 옥황상제는 8선녀에게 갖가지 비단과 금은보화들을 가득 실은 여덟필의 누런 하늘황소를 주어 만폭동에 내려보내였다.
그때는 화창한 봄날이였다. 만폭동어귀에는 산듯한 여덟채의 기와집이 솟아났고 8형제총각과 8선녀는 차례로 짝을 뭇고 집들을 하나씩 차지하였다.
그들은 누런 황소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의좋게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　*　*

유모아

돈없이 산 술

한 린색한 주인이 머슴을 보고 술을 사오라면서 돈은 주지 않았다.
《주인님, 돈없이 술을 어떻게 삽니까?》
《돈을 가지고야 누군들 술을 못 사겠느냐. 돈없이 술을 사와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얼마후 머슴이 빈병을 들고 돌아왔다.
주인은 화가 나서 《그래, 난 무엇을 마시란 말이냐.》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술 있는 병에서 술을 마시는거야 누구나 다할수 있지요. 술 없는 병에서 술을 마셔야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머슴이 태연스레 하는 말이였다.

*　*　*

사 화

촉석루의 의암

임진조국전쟁때인 1592년 10월 진주성공격에서 참패한 왜적들은 그 이듬해인 1593년 6월에 12만 3 000여명의 군사로 재차 공격해왔다. 성의 방위자들은 40배나 넘는 왜적과 싸워 7일간 견지하였으나 엄청난 력량상차이로 성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적들이 진주성을 강점한 1593년 7월초 어느날이였다. 적들은 성안을 략탈하고 게다니를 비롯한 왜장들은 남강기슭 벼랑우에 세워진 촉석루에서 술판을 벌리였다.
게다니는 한 아전에게 인물이 절색이고 노래춤이 유명하다는 이 지방 기생 론개를 데려오라고 호통쳤다.
아전은 그를 데려오기가 힘들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것은 이미 론개가 진주성의 지휘처였던 이 촉석루에서 의병장들이 마지막피 한방울 남을 때까지 왜적들과 싸우자고 맹약을 할 때 같이 거기에 참가했었고 춤과 노래로 의병들과 인민들을 고무했으며 자신이 직접 밥을 지어나르고 적들에게 돌을 던지며 싸우는것을 보았기때문이였다.
《어째서 힘들다는거냐?》
게다니의 물음에 아전은 대답했다.
《론개는 원래 성품이 강직한데다 이곳 의병들과 가까이 지내던 사이입니다.》
《하하, 너는 기생이란게 뭔지 모르는구나. 기생은 언제나 강자를 따르는 법이다. 걱정말고 빨리 가서 내가 부른다고 해라.》
아전은 하는수없이 론개가 거처하고있는 한씨네 집에 찾아갔다. 한씨는 론개와 한고장 태생으로서 론개가 어머니라 부르면서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당시 론개는 연약한 녀인의 몸으로 남정들과 같이 밤낮으로 싸우면서 지쳐서 앓고있는 형편이였다. 왜적들은 막아나서는 한씨를 밀쳐버리고 론개가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들어갔다.
론개는 억지로 끌어내려는 왜적들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놔라. 네놈들에게는 도덕도 없느냐? 내 차비를 할테니 나가 기다려라.》
얼마후 론개가 나오자 아전도 놀랐고 한씨는 더했다. 론개는 초록색적삼에 다홍치마를 화려하게 차려입었는데 단정히 틀어올린 머리에는 사치한 비녀가 꽂혀있고 더구나 손가락마다에는 금가락지가 번쩍거리였다.
《애야, 정신이 있느냐? 가긴 어데 간단 말이냐?》
한씨는 준렬히 꾸짖었다.
그러자 론개는 말하였다.
《어머니, 왜장이 어떤자이기에 내가 오늘 안간다고 래일은 가만 있겠으며 어머니가 막는다고 그자들이 마음을 달리하겠나요? 어차피 가지 않고 견딜수 없는 길인데 제발로 떳떳하게 걸어가야지 구차하게 끌리여가겠어요.》
론개가 촉석루에 이르자 왜장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다. 화려한 차림에 아름다운 얼굴과 자태가 하늘의 선녀같이 보였던것이다.
단정히 앉아 청하는대로 술을 따라주는 론개에게서 여러잔을 받아먹은 왜장 게다니는 아전에게 소리쳤다.
《자, 봐라. 아름다운 조선기생인 론개가 나와 어떻게 재미나게 노는가를 말이다. 기생이란 어떤것인지 이제야 알겠지?》
해가 저물도록 왜장들에게 술을 잔뜩 먹인 론개는 적들이 모두 만취되여 정신없이 고아대고있는 틈을 타서 조용히 일어서며 게다니에게 눈짓하였다.
왜장 게다니를 끌고 남강가에 솟아있는 너럭바위우에 오른 론개는 한동안 검푸른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며칠전 의병대 지휘관이였던 김천일, 최경회 등이 저저마다 왜놈 두세놈씩 량팔에 끼고 이 깊은 곳에 몸을 던졌던것이다. 론개는 그들을 그려보며 그들처럼 나라위해 한몸 바치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이놈아, 나를 똑바로 보아라. 조선기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마.》
론개는 게다니의 목을 두팔로 안아조이면서 두발로 벼랑을 찼다. 그러자 하늘로 솟듯이 론개가 튕겨오르더니 벼랑에서 날아내려 검푸른 물우에 떨어지고말았다.
강물에 잠겨 허우적이던 왜장 게다니는 론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태질하였으나 금가락지로 깍지낀 그에게서 도저히 빠져나올수 없었다.
이때부터 촉석루아래에 있는 너럭바위는 론개의 의로운 절개를 칭송하여 《의암》(의로운 바위)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　*　*

민족의 향기

민족의 지혜어린 놋제품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금수강산》잡지의 지면에서 또다시 만나게 되여 기쁩니다.

해외에 계시는 동포여러분의 건강과 휴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과 력사와 문화의 폭넓은 상식을 주는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하나하나 골라 글을 엮어가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놋제품에로 달려갑니다.

놋에 대한 말이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제일 먼저 신선로가 떠오르게 될것입니다.

신선로가 조선의 특산음식으로 유명한것은 우리 나라의 산해진미를 다 맛볼수 있는 진귀한 음식감들과 그 조리법에만 비결이 있는것이 아니라 음식이름과 꼭같은 이름으로 불리우는 놋그릇에도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선로뿐아니라 옥류관과 청류관의 고기쟁반국수도 다를바 없습니다.

때문에 식생활도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음식문화에서 무시할수 없는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놋제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력사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일찌기 우리 인민들은 B. C. 3000년전 청동기시대에 벌써 동에 석 등을 넣어 합금을 만들어 로동도구와 무기, 치레거리를 만들어냈으며 점차적으로 식생활도구도 만들어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놋쟁반 하나만 놓고보아도 조선봉건왕조시기 유물로 전해오는 쟁반들 대부분이 놋쟁반이였는데 거기에는 국수를 담는 그릇도 있고 음식을 담은 그릇을 운반하는데 쓰이는 쟁반도 있습니다. 그보다 썩 앞서 고구려 춤무덤벽화에도 4각형의 쟁반이 그려져있는것을 보면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놋그릇을 써왔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식생활도구에는 밥, 국, 찬들을 담을수 있는 여러가지 크기와 용도의 그릇들과 밥주걱, 국자, 수저, 주전자, 술잔, 고뿌, 쟁반 등 그 가지수가 적지 않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선조들이 창안하고 발전시킨 놋제품들은 그 우수성으로 하여 당대에도 그러하였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오늘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하다면 놋으로 만든 제품들이 예나 지금이나 인민들속에서 즐겨리용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놋제품이 미학상 사람들에게 음식물의 눈맛을 돋구어주는데도 있지만 기본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있습니다.

동은 사람의 몸안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미량물질로서 몸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동은 적혈구와 콜라겐의 생성에 필요한 물질이며 여러가지 효소의 성분으로 될뿐아니라 항산화제로서 세포의 파괴와 로화를 막으며 관절염에 의한 아픔과 감염도 낮추어줍니다. 때문에 몸안에 동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피부색갈이 변화되며 빈혈증상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동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재료들은 가공과정에 70%정도나 류실된다고 합니다. 하여 놋제품들을 식생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는것입니다.

얼마전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을 찾은 우리는 놋제품생산공정들을 돌아본 후 제품견본실에 들려 지배인 김철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놋제품들은 100% 국산화되여있을뿐아니라 금은세공을 하는 기능공들이 수공업적으로 품을 들여 만들어내고있다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해 신선로, 수저를 비롯한 네가지의 놋제품이 국내최우수제품으로 인정되였습니다.

최근 우리는 동이 산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자들의 사용에 편리하게 세척제도 연구개발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 놋제품에 대한 남다른 호감을 가지고있다면 조국에 오는 기회에 보통강백화점과 광복지구상업중심, 평양고려호텔, 양각도국제호텔, 고려동포회관, 월향전시관, 만경대관광기념품상점에 찾아가보십시오.

자기의 기호에 만족을 주는 놋제품을 조국방문기념으로 가지고가서 자신과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언제나 즐겨사용할 때면 그 순간 이름할수 없는 민족적자부심에 다시한번 가슴을 적시게 될것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력사인물

고려의학백과전서 《의방류취》편찬에 기여한 로중례

로중례(?년-1452년)는 15세기에 활동한 고려의학자이다.

그는 뛰여난 의술로 하여 1419년부터 전의감의 판사로 있으면서 우리 나라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는데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바치였다. 로중례가 활동한 15세기 초엽 및 중엽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통치배들은 사대주의에 물젖어 고려의학을 천시하고 다른 나라의 의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나는 고려약을 홀시하고 다른 나라의 약재만이 더 효력이 있는듯이 주장하였다.

이런 속에서 로중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려의학의 유산을 되살리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병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실용적인 의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나는 고려약(향약)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려약의 성미와 약효를 다른 나라에서 나는 약재와 대비연구하는 사업을 오랜 기간 하였으며 직접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나라 향약의 우점을 밝히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로중례는 자기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유효통, 박윤덕과 함께 《향약채취월령》과 《향약집성방》을 집필편찬하였다.

로중례는 오랜 기간의 림상활동을 통하여 갓난아이의 병이 많고 임신, 해산과 관련하여 녀성들이 많이 사망하는것을 목격하고 1434년에는 산과와 갓난아이병에 대해 상, 하 두권으로 갈라서 《태산요록》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조선봉건왕조 초시기 녀의사양성을 위한 교재로 리용되였다.

로중례는 1443년에 고려의학의 백과전서로 내외에 널리 알려진 《의방류취》편찬사업을 총책임지고 진행하여 3년만인 1445년에 전 365권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책을 성과적으로 편찬하는데 기여하였다.

《의방류취》는 그 규모에 있어서 동서고금의 의학도서출판력사상 그 류례가 없는 방대한 것일뿐아니라 고려의학의 과학적성과와 특성이 훌륭히 반영된 의학도서로서 세계최초의 의학대백과전서이다.

로중례는 이 사업을 통하여 의학자로서 자기의 생애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아놓았다. 그밖에도 그는 많은 의학도서편찬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광천학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업적을 남겨놓았다. 그는 의학자로서 저술과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을뿐아니라 자기의 뛰여난 의술로써 직접 환자들의 질병치료에 노력과 지식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의술은 당대에 유명하였는데 뛰여난 림상의사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명의로서 그에 대한 소문은 전국에 널리 퍼졌으므로 항상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특히 당시 국왕이였던 세종을 비롯한 왕족과 봉건관료들은 물론 온 나라 백성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있었다.

하기에 국왕 세종도 로중례의 깊고 넓은 학식과 뛰여난 의술에 탄복하여 《의술은 인명을 치료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이 적다. 판사 로중례에게는 대를 이을자가 없으니 총명한 소년을 뽑아 그에게서 의학을 배워 그의 뒤를 잇게 하라.》고 명령하였던것이다.

일생을 두고 우리 나라 의학발전과 림상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의학자이며 명의인 로중례는 1452년 자기의 생애를 마치였다.

평민출신인것으로 하여 그의 출생년대는 전해지지 않고있다.

* * *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9)

- 을밀대 -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 이번에는 모란봉에 있는 을밀대로 향하였습니다.

을밀대는 고구려 평양성 내성 북장대터에 세워진 루정입니다.

모란봉에 솟아있는 을밀대는 대동강을 끼고있어 주위의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평양8경의 하나로서 《을밀상춘(을밀대의 봄맞이)》이라 불리워왔던것 같습니다.

을밀대란 웃미루터(웃밀이언덕)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밖에 옛날 을밀선인이 자주 하늘에서 내려와 여기서 놀았다는데서 또한 고구려때 을밀장군이 이곳을 지켜 싸웠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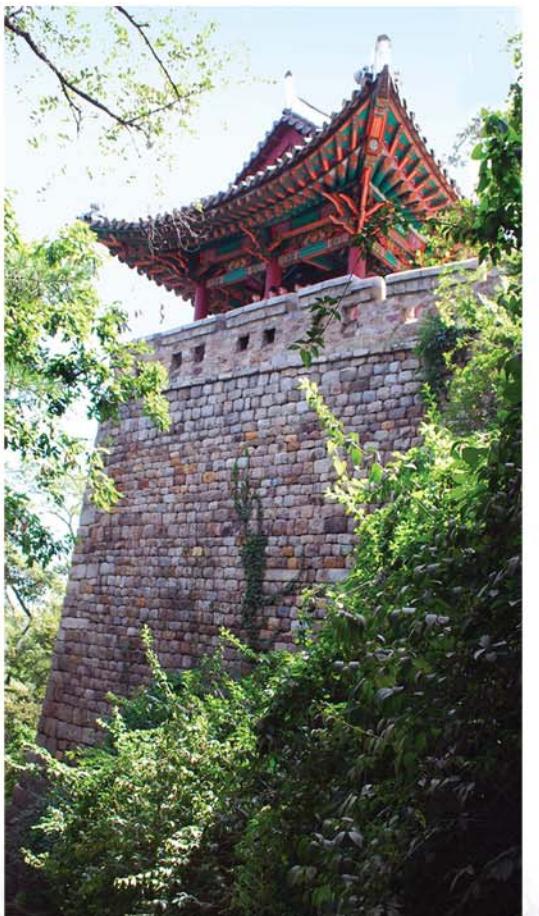
을밀대는 6세기 중엽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북쪽장대로 처음 건설되였으며 1714년에 고쳐지었는데 그후에도 여러차례 보수하였다고 합니다.

을밀대의 축대는 높이 약 11m로서 아득히 솟아오른감을 줍니다. 축대의 밑부분은 계단모양으로 쌓고 밑돌우에 턱을 지어 웃돌이 밀려나지 않게 하고 우로 오르면서 점차 작은 성돌을 쌓았는데 고구려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습니다. 축대우에는 성가퀴를 쌓고 거기에 총을 쏘는 구멍을 뚫어놓았습니다.

축대우에 아득히 떠보이는 루정은 정면 3간(7. 46m), 측면 2간(5. 29m)의 단층겹처마 합각집입니다. 루정은 사방이 탁 트인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고있다 하여 사허정이라고도 합니다.

기둥은 밑부분에 높이 1m정도의 4각돌기둥을 받치고 그우에 둥근 나무기둥을 이어대여 비바람의 피해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기둥우에는 2익공바깥도리식두공을 얹었습니다. 화반에는 련꽃무늬가 있는데 주장여와 주도리사이를 띄우고 거기에 또 화반을 놓아 겹으로 하였습니다. 루정은 화려한 모루단청을 하여 주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립니다.

을밀대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3일 을밀대에 오르시여 우리 선조들의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유적을 잘 관리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주체35(1946)년 3월 2일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을밀대를 찾으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승지를 잘 꾸려 인민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즐기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주체56(1967)년 3월 4일 을밀대에 오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여기는 경치도 좋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선조들의 애국적투쟁이 깃들어있어 유서깊은 곳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을밀대부근에서 동평양에 있던 일제의 비행장과 여러 군사시설을 정찰하여 조국해방위업에 기여한 이야기도 깃들어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신애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온 조국통일위업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다.

지난 기간 공화국은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사실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고 겨레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였다.

돌이켜보면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고 겨레의 단합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통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조선은 분렬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때마다 민족자주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여 난국을 타개하시였으며 열렬한 민족애와 고결한 덕망으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고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신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고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사상과 로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있어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일떠설수 있었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자주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뜨거운 동포애적조치와 여러 갈래의 대화를 통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킬수 있었다.

그리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불길속에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되고 민족의 슬기를 보여주는 통일행사들이 련이어 진행되였으며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운동으로 더욱 확대발전되였다.

주체적통일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함으로써 내외반통일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북남관계는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6. 15통일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며 활력소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본사기자 유선화

민족사에 씻을수 없는 죄악으로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정세의 흐름도 볼줄 모르고 민심의 지향도 따를줄 모르는 눈뜬 청맹과니라는 말이 나돌고있다. 그것은 물론 남조선의 박근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박근혜는 입만 짜개지면 《북핵포기》, 《북의 추가도발》에 대해 고아대며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니, 《자멸》이니 하는 망발들을 줴쳐대고있다.

정치군사적대결의 극한점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북남관계에 화해와 개선의 기회가 찾아들고있을 때 박근혜가 《제재》와 압박으로 공화국을 어째볼 흉심을 또다시 드러낸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행운의 기회를 뿌리치고 자멸의 길로 질주하는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민족의 운명이 달린 북남관계가 더없이 소중하기에 남조선당국에 과거를 불문하고 선의와 아량의 손을 내밀었다.

사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울려퍼진 절세위인의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그 현명성과 정당성,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내외의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보수당국이 공화국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립장과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그에는 전혀 아랑곳없이 《진정성없는 위장공세》니, 《남남갈등》이니 뭐니 하는 속삐뚤어진 나발들만 내뱉으면서 공화국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엇서나왔다.

그 앞장에 선 박근혜가 《북의 핵개발이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다.》느니, 《지금은 북비핵화라는 과제달성을 위한 의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때》라느니 뭐니 하며 자극적인 망언을 마구 쏟아놓은것은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이 아니라 정치군사적대결의 길로 계속 질주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현실은 박근혜의 동족대결야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가 추구하는것은 오로지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는것뿐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와 북남대결과 긴장격화를 고취하는 남조선당국의 엄중한 정치적도발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해외에서 일하고있던 공화국공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4월초 정보원깡패들을 내세워 중국 절강성 녕파에서 공화국의 녀성공민들을 백주에 집단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가는 극악한 테로행위를 감행하였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공화국이 공민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낼것과 피해자부모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만날수 있도록 실무적조치를 즉각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은 피해자부모들의 초보적인 인도주의적요구도 불허하고 피해자들을 독감방에 가두어 언론과의 일체 접촉을 차단하면서 《자원적인 탈북》이라는 외마디소리만 줴쳐댔다.

그러다가 저들의 집단유인랍치만행이 사전에 면밀히 계획되고 의도적으로 감행되였으며 그 불순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 불보듯 뻔해지자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장백교회목사피살사건과 같은 모략극을 조작해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쏠리는 내외의 비난여론을 공화국에로 돌리고 집단유인랍치만행을 합리화하려고 비렬하게 놀아댔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남조선당국이야말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서당개 삼년에 풍월을 짓는다고 그쯤했으면 이제는 날로 악랄해지는 적대세력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 압력속에서도 선군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불패의 국력, 무진막강한 잠재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아야 할 남조선당국자들이 아직도 잠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허황한 꿈을 꾸고있는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동족이 내민 선의와 아량의 손길을 끝끝내 뿌리친다면 그것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처사로 된다.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의 새 력사를 함께 써나가려는 일념에서 내민 동포애적인 선의의 손길을 외면한다면 민족사에 두고두고 씻을수 없는 치욕과 죄악을 남기게 되며 그것은 결국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남조선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솔미

《인권옹호자》의 탈을 쓴 오바마

오늘 국제사회는 오바마를 《인권옹호자》의 탈을 쓰고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분쟁을 야기시키며 피를 즐기는 살인마로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로씨야 모스크바시의 어느 한 구역에 새로 생겨난 뻐스정류소에 하나의 금연선전화가 나붙었다. 선전화에는 금연구호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오바마의 사진이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었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오바마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오바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오바마처럼 하지 마십시오.》

면사포를 쓰고 미국이 저지르는 살인만행이 얼마나 끔찍스러운것이였으면 오바마가 모순된 행위의 금연광고주인공이 되였겠는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사이에 해마다 약 1만 4 000명으로부터 11만명까지의 무고한 사람들이 미국의 《반테로전》에 의해 살해되였다.

미국의 《반테로전》의 첫 전장으로 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11년 한해동안에만도 3 021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파키스탄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68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484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미군의 공격으로 죽음을 강요당하였다.

미국이 《테로분자소탕》을 운운하며 발을 들여놓고있는 수리아에서도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살해되고있다. 올해 2월 미공군소속 비행기들은 수리아에서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무참히 폭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전대미문의 민간인살륙만행을 감행하도록 떠민것이 바로 오바마집권세력이다.

몇해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글을 발표하여 오바마가 예멘과 소말리아 특히 파키스탄에서의 무인기공격을 매번 직접 승인하였는데 무인기가 진짜테로분자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공격하여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살해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오바마행정부가 저들이 처한 정치적위기때문에 《반테로전》을 벌려놓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뿐만아니라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중동지역에서 《색갈혁명》을 일으켜 국가전복과 민족내부분쟁, 참혹한 전란을 산생시키고 세계최악의 피난민사태를 빚어낸 장본인도 바로 미국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분쟁지역들에서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들고있는 사태, 유럽을 통채로 아비규환속에 몰아넣고있는 테로공격사건 등도 모두 오바마행정부에 의해 생겨난 비극적현실이다.

그뿐이 아니다. 수십년간이나 지속되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등은 우리 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올해 오바마행정부가 조작한 유엔 대조선《제재결의》만 놓고보아도 군사분야는 물론 무기개발과 전혀 인연이 없는 인민생활필수품들 지어는 일반식료품들과 어린아이들의 놀이감까지도 《제재항목》으로 규제해놓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권》을 곧잘 외워대고있다. 해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해당 나라들에 마치도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는듯이 국제사회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미국이야말로 극심한 인종차별과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세인을 경악케 하는 인권침해행위들이 만연하는 인권불모지이다. 오바마의 집권이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비밀감옥에서의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고문 등 참혹한 인권유린죄악이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오바마가 인권유린의 왕초로서의 추악한 본색을 가리워보려고 《인권옹호자》의 탈을 쓰고 인권을 부르짖는 그자체가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저들의 인권유린범죄를 감추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며 미국식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지배주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실지 인권피고석에 끌려나와 심판받아야 할 범인은 다름아닌 미국, 오바마자신이다.

본사기자 진룡진

지울수 없는 문화재략탈범죄 (5)

이번호에서는 일제가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보여주는 풍부한 건축유산들을 파괴략탈한 만행에 대하여 까밝혀보려고 한다.

- 건축문화유산과 불교사원유물파괴략탈 -

오랜 력사적과정에 창조된 조선민족의 건축유산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조선민족은 슬기로운 건축술로 도시, 성, 각종 건물과 건축구조물들을 창조하였다.

일제의 략탈의 마수는 건축문화유산에 제일먼저 뻗쳐졌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개시한 첫날부터 군사적통치전기간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략탈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무엇보다먼저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파괴략탈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일제가 조선의 고건축에 대한 조사를 단행한것은 고건축물이 지질, 력사, 사회, 민속 등을 포함한 모든 정신사적 및 미적관념의 총 결정체일뿐아니라 조선문화재의 총 본산으로서 이것만 장악하면 조선의 문화재를 모조리 종합략탈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일제는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봉건왕조 등 여러 시대의 고적과 왕궁, 사원, 릉묘, 서원, 유물을 비롯하여 미술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조사를 한데 기초하여 건축문화유산은 물론 조선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략탈대장을 만들어놓고 수많은 건축문화유산을 파괴하고 략탈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면서 봉건정부의 상징이며 대표적인 민족건축물의 하나인 왕궁과 기타 관청, 민가 등을 마구 파괴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파괴략탈행위는 그후 조선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로골화되였다.

갑오농민전쟁을 구실로 조선에 기여든 일제침략자들은 국왕 고종을 협박하여 내정을 장악할 흉심밑에 1894년 5월 12일 저녁 경복궁에 달려들었다.

일제는 남대문이 굳게 닫혀있어 침범할수 없게 되자 성을 허물고 남산을 넘어 성안에 침입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1894년 6월 20일 또다시 경복궁에 침입하여 문을 부시고 별전에 이르러 왕과 왕비를 협박하면서 왕궁을 마구 부시고 파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조선을 전쟁마당으로 삼은 일제는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주요싸움마당에서 포격과 몰사격으로 관청과 민가를 비롯한 수많은 건물들을 파괴하였으며 로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와 일제의 군사적통치시기에는 더 로골적으로 파괴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강점후 일제는 조선봉건왕조국가의 상징이며 대표적인 민족건축물인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왕궁을 파괴소각하는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제는 궁궐안에 남아있던 정전인 근정전과 교태전, 경회루 등의 주요건물은 물론 7만 2 000㎡의 부지안에 있던 기타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5 200여㎡에 달하는 부지에 각종 진렬관을 새로 건설하게 함으로써 경복궁의 면모를 없애버리였다.

일제는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을 비롯한 여러 왕궁도 파괴하였다.

또한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군사적통치를 위한 청사들과 침략군병영 및 헌병, 경찰서들을 세우면서 력사적인 건축문화유산들을 모조리 파괴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슬기와 재능, 애국의 넋이 깃들어있는 성곽, 성지들도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일제가 파괴한 읍성, 진성은 전국적으로 280여개, 북반부지역에서만도 120여개에 달하였다. 이밖에 옛성터로서 학술연구의 대상으로 되는것도 수십개소나 파괴하였다.

일제가 강탈하려던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일제에게 략탈당하였던
경천사탑

일제는 사원유물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불상도 매수, 공갈, 사기 등의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략탈하였으며 석조미술품, 조선종들도 파괴하였다.

일제는 수많은 석탑을 략취했을뿐아니라 석탑속의 부장품인 사리장치유물 즉 금, 은 혹은 금동제의 불상, 보탑, 사리병들을 략탈하기 위해 다이나마이트로 탑을 폭파하거나 까부시였다. 1930년대 중엽에는 개성시에 있는 고려시기 현화사 7층석탑의 사리장치를 략탈하기 위해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깊은 밤중을 리용하여 다이나마이트로 탑을 폭파하고 유물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파괴된 석탑 또한 그 수를 헤아릴수 없다.

일제는 석탑과 함께 석등, 부도, 비석 등 수많은 석조미술품들을 략탈파괴하였다.

불국사 다보탑의 돌사자와 사리탑, 중흥산성의 쌍사자석등, 보리사터의 부도탑…

일제는 석탑이나 부도, 돌사자와 같은 미술품외에도 왕이나 이름난 중, 애국명장들의 업적을 기록한 수많은 비석들도 략탈하거나 파괴하였다.

참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제의 건축문화유산략탈이야말로 야만적인 범죄행위였다.

본사기자 김솔미

조선속담 (싫음)

-한잎 주고 보라 하면 두잎 주고 막겠다

아주 보기 싫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떡먼 버룩이요 날면 파리다

벼룩과 파리는 가장 귀찮고 미운것이므로 제 마음에 맞지 않는 자는 무슨짓을 하나 밉게만 보인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쓰니 시어머니

낡은 생활양식에서: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흔히 며느리를 못살게 굴고 미워한다는 뜻에서 이르던 말.

-엄지발가락이 두뼘가웃

착취사회에서: 얼마나 놀고먹었으면 엄지발가락이 두뼘이나 되였겠는가 라는 뜻으로 착취계급을 증오하여 이르던 말.

-도깨비를 사귄셈이라

귀찮은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늘 따라다니며 성화를 부릴 경우에 이르는 말.

-진날 개 사귄것 같다

진날 개는 흙이 발리여 더럽기때문에 가까이 사귀면 옷이 더러워진다는데로부터 귀찮은 사람을 만났거나 그가 추근추근 따라다니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염병에 까마귀소리

① 귀에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비겨 이르는 말.

② 귀찮은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늘 따라다니며 성화를 부릴 경우에 이르는 말.

-찰떡도 한두끼

좋은것도 한두번이지 여러번 반복되면 싫어진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입에서 신물이 나다

이제는 그런 말을 하기에 싫증이 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　　*

일본, 죄악은 끝까지 결산될것이다

이제는 일본이 패망(1945. 8. 15.)하고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해방된지도 70년이 넘었다. 그러나 과거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끼친 천인공노할 죄행과 헤아릴수 없는 피해는 반세기가 훨씬 넘은 세월이 흘렀어도 가셔지지 않고있으며 또 가셔질수도 없다.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전쟁터와 고역장에 강제련행하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끌어다 비참한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범죄를 비롯하여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만고대죄는 절대로 부정하고 미화분식, 회피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오늘까지도 어느 하나 옳바로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공화국과의 과거청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저들의 반인륜적범죄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일환으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보다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조선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 찬 일본반동들은 경찰들을 내몰아 백주에 총련산하의 경제단체사무소들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는가 하면 극우익분자들을 내몰아 합법적인 총련의 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통고장》을 정부에 제출한다 어쩐다 하며 불맞은 승냥이마냥 날뛰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일본 규슈의 구마모도지방에서 대규모지진이 발생한 후 조선인들에 대한 우익반동세력들의 민족배타주의책동이 보다 살기를 띠고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인터네트에 조선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황당무계한 글이 오르는가 하면 조선인의 폭동에 조심하라는 등 극단한 민족적적대감과 혐오감을 고취하는 류언비어들이 공공연히 나돌고있다.

이것은 일본사무라이들이 조선인대학살을 감행하였던 1923년에 있은 간또대지진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당시 일본당국은 강한 지진으로 재난을 당한 간또지방주민들의 반정부감정의 창끝을 재일조선인들에게 돌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조선인이 방화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친다.》 등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류포시키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대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간또대지진이 일어난 때로부터 거의 한세기가 되여오는 오늘 구마모도대지진을 계기로 93년전 조선인대학살때의 몸서리치는 망언이 뻐젓이 나돌고있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조선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참을수 없는 치욕과 불행을 들씌운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되살려보려는 군국주의망령들이 아직도 살아 일본령토를 배회하고있다는것을 뚜렷히 실증해준다. 그것은 또한 공화국에 대한 과거청산과 반인륜적범죄를 덮어버리는 길은 오직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정책적생존수단으로 여길 때 가능한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반동들의 속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기에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추종하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각이한 명목의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한편 조선의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고 집요하게 벌려왔던것이다. 이렇게 일본은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벌려놓다 못해 그것이 하나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비렬하게도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이다.

결국 일본반동들은 과거 저들이 저지른 만고대죄에 대한 사죄와 청산은커녕 조선민족에게 계속 죄를 덧쌓고있다.

지금 일본의 죄악을 기어이 결산하고 피맺힌 원한을 풀고야말려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백배해지고있다.

일본의 죄악은 끝까지 결산될것이다.

본사기자

고 화

《부산진순절도》

1592년 4월 13일 포악한 일본침략자들은 불의에 우리 나라를 침입하였다.

당시 남쪽관문이였던 부산진의 인민들과 군인들은 청사 정발의 지휘밑에 가증스러운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첫 공격을 물리쳤으며 나중에는 화살이 떨어지자 칼과 창으로 적을 맞받아 육박전을 벌리면서 영용하게 싸우다 성과 운명을 같이하였다.

이 그림은 량일간에 걸쳐 부산진에서 있은 격전장면을 그린것이다.

그림에는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지키려는 결사의 의지로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싸운 군민들의 의로운 모습과 가렬처절하였던 전투장면이 실감있게 잘 나타나있으며 성곽과 건물들도 모두 정밀하게 그려져있다.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군민들의 충절을 담아 1709년에 그린 이 그림을 1760년 동래부의 화원인 변박(자 탁지)이 고쳐 그리였다.

* *

묘향산의 이선남폭포　　　본사기자 임정국

의좋은 형제처럼 나란히 경사진 바위를 따라 흐르다가 바위턱에 걸려 앞으로 내뿜기도 하면서 소에 떨어졌다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선남폭포,

천하절승 묘향산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이 폭포는 천태동에 자리잡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682145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